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3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7월 11일 (토) 제 1784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교회는 분열이 아닌 “하나됨” 이다!

## TGC, 현장예배 재개여부 따른 교회구성원들의 논란에 따른 대처방안 제안

COVID-19 사태를 맞은 지난 몇 달, 전세계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와 관련한 복잡한 도전들로 인해 끊임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다양하고도 복잡한 도전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대두된 문제는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것인데, 다른 아니라 현장예배 재개 여부와 관련한 문제다. 특히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예배 재개여부 또 연기되고 있다.

개인 간 거리두기, 예배 참석자의 숫자 제한, 마스크 착용 문제, 소리 내어 찬양을 할 것인가의 여부, 주일학교 문제 등등과 같은 물리적 디테일이 필요한 문제들이 별로 도전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배 재개와 관련한 대부분의 대화는 말 그대로 교회를 분열시킬 잠재력으로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리더십 그룹을 포함하는) 회중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들

이 가진 다양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참지 못해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지만, 또 이와는 정반대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양극단의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극단적 사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끄러운 분열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됨을(시133) 보여줄 수 있을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TGC 편집장, 브렛 맥크라켄 (Brett McCracken)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육체의 소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교회는 이 세상 앞에서 분열과 반목을 이겨내는 반문화적인 모델(counter-cultural model)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제안한다(Church, Don't Let Coronavirus Divide You).

람들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장예배 재개에 부담을 가진 교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는 것은 교회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준다.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거부감을 가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예배와 같은 예방조치에 동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희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양보가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반문화적인 겸손

지금의 사태와 관련해서 나 자신부터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차 있는지 스스로 돌아본 적이 있는가? 평신도와 리더 또는 소위 전문가들을 가리지 않고 전혀 근거 없는 확신을 퍼뜨리는 것은 최소한 COVID-19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하다. 그 누구라도 모든 사실을 100%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조금씩 더 겸손해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모습에 앞장서야 한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은 야고보 사도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느디 하며 성 내기도 더디 하라”(약1:19).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계획 수립과 실행을 조금 느리게 만들지는 몰라도,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현장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간을 두고 최대한 다양한 의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빈민촌 다라비에서 철저한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 아시아 최대빈민가, 코로나19 전파 막아 BBC, 통제, 검사, 음식제공 등으로 확산방지 보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판자촌 중 하나,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치에 불과하다.

2.5km에 지나지 않는 공간 안에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30m 정도에 지나지 않는 판자집 하나에 8명에서 10명이 거주한다. 또 주민의 80%가량은 공동 화장실을 이용한다. 빈민촌을 가로지르는 좁디좁은 길들을 둘러싼 건물들에는 공장과 집들이 마구 뒤엉켜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집에서 요리를 하는 대신 밖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하지만 인도 경제와 문화의 수도인 뭄바이 중심지에서 무질서하게 뿔어 나가고 있는 빈민촌 다라비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따라서 BBC는 가장 큰 격정거리에서 방역모범 사례가 되니까 아시아 최대 빈민가인 인도 뭄바이 다라비의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보도한다(Coronavirus: The race to stop the virus spread in Asia's 'biggest slum').

다라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4월 1일 이후로 확진 환자는 2000명 이상, 의심 사망자는 80명이 보고됐다. 확진자 중 절반가량은 회복했다. 5월에 최고 43명을 기록했

던 하루 확진자 수는 6월 3주차가 되자 19명가량으로 떨어졌다. 또 확진자가 두 배로 불어나는 기간도 18일에서 78일로 길어졌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푸른초장  
최창섭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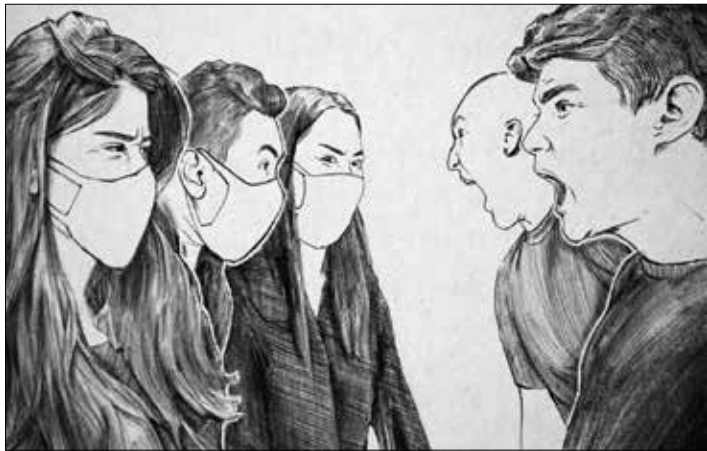
4면  
개혁의 땀방울-  
조진모 목사

7면

### 반문화적인 희생

자기우상숭배(self-idolatry)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때야말로 교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나 자신보다 앞세우는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서로 간에 항상 6피트의 거리를 두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이런 예방조치가 불필요한 과잉조치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설혹 이런 예방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당신의 그 확신을 잠시나마 접어놓을 수는 없는 것일까? 교회가 예배를 재개했는데도



여전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리석고 또는 겁쟁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14장 속 바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건 어떨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또는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기억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와 마찬가지로, 봉쇄정책(lockdowns)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행동제한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쏘아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런 양극단의 의견을 가진 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1919@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전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올해는 2020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2016년부터 매년 7월에 개최해 온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올해는 COVID-19에 따른 규제와 청소년들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내년을 기약하기 원합니다.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청소년들과 교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문의 :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Tel 951.928.4415 /lafgcd@gmail.com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발행인 칼럼

단 한 번 입은 양복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양복감을 받아 드신 목사님은 너무 당황하셨다고 한다. 어려운 가운데 계신 권사님이 양복감을 선물로 주셔서 당황했고, 가만 열어보니 양복감의 재질은 대중적이기도 않았고 색상은 목사가 입을 수 없는 칼라였기 때문이었다. 목사님의 고민은 그 양복감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더 커졌다. 사모님과 함께 그 양복감을 펼쳐 들고 이 이상한(?) 양복감으로 양복을 맞춰서는 한 번도 못 입을 것 같고 또 양복을 맞출 돈도 없으셨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렇게 의논하셨다. 일단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양복을 맞추어 입고 양복감을 주신 권사님이 주일예배에 나오시면 이렇게 양복을 입게 되었다고 감사인사를 드리자고.

몇 주의 시간이 흐른 다음 목사님은 그 당시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재질과 색상의 양복을 입고 주일날 교회에 나타나셨다. 그 주일, 목사님을 뵈는 모든 성도들은 너무나 어색한 양복을 입으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목사님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양복감을 주신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을 때 환히 맞으시고 주신 양복감으로 이렇게 양복을 만들어 입게 되었다고 감사 드리셨다. 권사님은 자신이 준 양복감으로 멋진(?) 양복을 입으신 목사님을 뵈고 너무 기뻐하셨다.

권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큰돈을 드려 양복을 맞춰 입으신 목사님은 더 이상 그 양복을 입으실 수 없었다. 단 한 번 입기 위해, 권사님에게 실망이 드리지 않고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양복을 지어 입으신 것이다. 그 권사님은 나의 어머니였고, 그 목사님은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곧 나의 모교의 그 당시 어머니 구역 담당 목사님이셨다.

몇 달,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나는 입에는 웃음으로 마음에는 눈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양복감을 갖고 계셨는지, 왜 목사님께 양복 맞추실 돈을 함께 주시지 않으시고 웃감만 주셨는지(물론 이유가 없으셨을 것이다), 여러 생각에 잠겼었다. 무엇보다 그런 어이없는 선택을 하신 목사님의 성도 사랑에 마음이 저했다. 다시는 그 양복을 입으실 수 없음을 아시고도 목사 아들을 미국 보내고 홀로 사시던 권사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어울리지 않는 양복을 비싸게 지어 입으신 목사님이 던져주신 큰 감동은 평생 지울 수가 없다.

사실, 나의 어머니도 어이없는 선택을 많이 하셨다. 아버님에게 있던 것은 딸 다섯과 아들 하나, 없으신 것은 집과 돈이었다. 아, 중요한 것 하나 있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특신하셨다. 어머니는 이런 가정에서 아버님의 아내가 되시기로, 나와 우리 누님들의 어머니가 되시기로 선택하셨다. 아들이 목회 길을 가는데 기도와 뒷바라지 하시기를 기쁘게 선택하셨다. 몸이 약하신 데도 아들을 위해 수차례 금식(어떨 때는 집에서 22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을 보았다)을 선택하셨다. 훗날 천국에 올라가 어머니께 왜 그런 어이없는(?) 선택들을 즐겨 하셨냐고 여쭙어볼 참이다.

어이없는 선택을 말하자면 단연코 우리 예수님이시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선택을 깊이 묵상해 본다. 목사님의 선택과 어머니의 선택도 생각해 본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왜 날 사랑하나/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왜 날 사랑하나/왜 날 사랑하나/왜 날 사랑하나/왜 주님 같보리 가야했나/왜 날 사랑하나.”

온라인 소그룹, 특수성 알고 진행하면 영향력 증가

SmallGroup.com, 새들백교회 온라인 사역담당 제이 크란다의 온라인 특수성 소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예배, 세미나, 소그룹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사역이 시도되고 있다. 온라인 사역을 진행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온라인 사역은 단지 오프라인 사역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온라인 소그룹에도 그만의 특수성이 있다. 그 특수성을 이해할 때, 온라인 소그룹

만의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소그룹 사역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

새들백교회 온라인 사역담당 크란다(Jay Kranda)는 온라인 소그룹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How Online Small Groups Work).

- 1. 온라인 소그룹은 두 가지 상호작용 형태가 있다. 2. 사람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수성이 있다.

온라인 세계는 매우 광범위하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그룹,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특정 홈페이지에 공동체의 글과 사진을 올리며 소통할 수 있는 일명 “홈페이지” 온라인 소그룹이다. 이 역시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영상을 활용한 실황 소그룹에는 제한이 있다. 다만 영상 실황 소그룹의 시간 약속을 정하고, 실황 소그룹이 마친 후 소감을 올리거나, 일상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별도의 활용법

사람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한다. 특히 유료로 사용 중인 서비스가 있다면, 소그룹을 위해 다른 기술

를 몇 차례 진행할 수 있어야 얼굴과 음성이 모두 공개되는 온라인 화상 소그룹으로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 온라인 화상 소그룹을 기계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리더가 먼저 소그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연락, 전화연락을 자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4. “비디오 기반”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라. 온라인 소그룹은 화상회의를 사용하는, “비디오 기반”의 모임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도 우리는 영상매체

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때는 소그룹에 함께 모여 리더가 들려주는 영상을 시청한 뒤, 영상에 관한 소감을 나누는 형태로 활용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모임 때는, 리더가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외부의 영상을 트는 형태는 매우 어색한 일이 될 것이다.

개개인은 사전에 영상을 시청하고 모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 무엇을 함께 보기 위해 시간을 더 쓰지 말고, 영상링크를 보내 개인이 먼저 영상을 보게 한 후, 온라인에서 만나자마자 나눔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소그룹의 시간활용을 더 유연하게 하며, 사람들의 집중도

온라인 사역은 오프라인을 그대로 옮겨온 것 아냐 홈페이지와 화상회의기반 적절히 활용, 사전과정 필요

적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가 일괄적으로 특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강조하기 전에, 소그룹원들이 사전에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때론 리더가 다수의 소그룹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3. 온라인 화상 소그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과정이 필요하다. 관계발전 전에 과정이 필요하다.

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점이다. 결론으로, 온라인 소그룹을 위해 리더는 반드시 홈페이지와 화상회의 형태의 소그룹을 모두 준비하며, 특히 소그룹원들이 사용하기 편한 기술적 환경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소그룹원들이 온라인 소그룹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단계의 연락들을 부지런히 진행하며, 사전에 다양한 영상자료를 제공해 실제 모임의 집중도를 높여주어, 온라인 소그룹의 특성을 잘 활용한 성공적인 소그룹으로 코로나 19상황에서도 승리해야 한다.

4. “비디오 기반”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라.

온라인 소그룹은 화상회의를 사용하는, “비디오 기반”의 모임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도 우리는 영상매체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번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배전문
뉴욕)Tel. 718)762-0011 뉴저지)Tel.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www.chpress.net
광고문의: 347-223-1531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혁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담임목사 청빙 공고
아리조나 피닉스시에 2004년 설립된 초교파 교회인 사랑의 공동체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함께 할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청빙요건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회자(M. Div. 학위 취득자) 2)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로 설교와 소통이 가능한 분 3) 미국 체류를 위해 합법적인 신분을 소유한 분 4) 3년 이상의 이민 목회 경력에 있는 분(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2. 제출서류 1) 영문 및 한글 이력서 각 1부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최근 사진포함)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신앙 고백서, 목회 비전 또는 목회계획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6) 추천서 2부(추천인의 연락처 포함) 7)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링크(Video file, Website 또는 YouTube link)
3. 보내실 곳 Love Community Church 사랑의 공동체교회 청빙위원회 25418 N 7 th Ave Phoenix AZ 85085 또는 email: hyokchun@yahoo.com
4. 서류제출 마감일 7월 31일 2020년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1) 청빙에 관한 문의로는 이메일(hyokchun@yahoo.com/권역준 장로)로 해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교회에 관한 정보는 lccaz.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임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ccaz.com
사랑의 공동체교회 LOVE COMMUNITY CHURCH

히즈핑거 (His 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너는 아느냐”
지은이 김성국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책에 대한 문의로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 교회는 분열이 아닌 “하나됨” 이다!

(1면에서 계속)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한 포럼을 열어서 교회 내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 뿐 아니라 다른 교회 지도자 또는 정부 관련한 사람까지 초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의 모델을 따라서 반응해야 한다(빌2:3).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이미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필요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현재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다. 그와 더불어 마치 "비행기를 하면서 비행기를 고치는" 것과 같은 위기의 순간인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예외 없이 하루라도 빨리 온라인 예배가 현장예배로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정부의 방침보다 빨라도 안 되고, 사회가 합의하는 수준보다 앞서도 안 된다.

바라는 만큼 빨리 되지 않더라도 인내해야 하고, 다시 예배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인내해야 하며, 또한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교회 지도자들의 상황도 인내해야 하고, 누구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놓고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를 향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현장에배가 꺼려지는 사람은 현장예배를 바라는 사람들을 인내해야 하고, 현장예배를 갈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인내해야 한다. 인내하는 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사

태가 비록 몇 달 또는 몇 년이 되더라도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반문화적인 뉘앙스 (Nuance)

우리는 지금 말에 여지를 두는 대신 '모' 아니면 '도'를 주장하는, 뉘앙스가 사라진 시대(un-nuanced age)를 살고 있다. 뉘앙스, 즉 의미에 여지를 두는 것은 클리수와 뷰어 숫자에 좌우되는 오늘날의 미디어 경제모델과도 맞지 않는다. 정치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에 오늘날과 같이 극단적으로 편을 가르고 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겸손한 자세로 복잡한 상황을 놓고 "둘다(both/and)"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하나됨과 친교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보다 반문화적인 뉘앙스의 길, 즉 극단적 주장을 피해 서로를 향해 여지를 두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은 모든 상황에 대하

여 무조건 소리 높여 극단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진리가 결코 트위터 몇 마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 시시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길은 용기와 신중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동시에 극단 및 절망적인 반응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봉쇄조치에 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서도 결코 황당한 음모론에 빠지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설혹 사회서비스에 역행하는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롬13).

이런 반문화적인 뉘앙스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리는 상대에 대해 최악의 생각을 하는 대신 나와 다른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달리 말해 나도 항상 옳지만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상대를 향해 여지를 가지는 이런 자세는 종종 겸손과 인내가 합쳐질 때 생기는 결과물이다.

물론 크리스천들이 결코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했던 간곡한 요청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 시론

## 하나님 처방전!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구약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의 승리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후 아사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두 다 기운 시냇가에서 죽입니다. 이때 이세벨 왕비는 "너도 내일 이맘때쯤 네가 죽인 이 사람들처럼 되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엘리야는 이 말 한마디를 허겁지겁 한참을 도망가다가 로텐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간청할 만큼 그의 영혼은 침체되었습니다. 도무지 스타일 구기고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렘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27가지의 관심을 갖습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피폐케 했을까?"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진단 잘못하면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병을 더 키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정확한 진단"에서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영혼이 처절하게 침체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왕상 19:10). 바로 이 '힘겨운 고독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 처방전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18)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렘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처음에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람, 지진, 불 등이 다 지난 후 고요한 정적 가운데 비로소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밀한 레마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나에게 세상과는 구분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 즉 나의 생활공간에서 한 군데쯤은 '나의 호렘산'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이든, 책상머리이든, 침대이든 어디든 나의 호렘산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 읽기,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 듣고 등등을 하는 '나의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나의 거룩한 공간'이 '나의 호렘산'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즉 QT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때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치료되고,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여 살아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 중에 '일거리'를 맡기십니다. 하사엘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도 박찬테 어떻게 남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으려고 하시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를 싸매고 드러놓든가,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다니느라,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일단 네 문제를 덮어두고 남을 도우라!'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남을 돕다보면, 어느덧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정말 아프고, 시간이 없을수록 교회를 위해 더 봉사하고 헌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프던 몸도 강건해지고 힘든 일들도 풀려 나가고 어려운 상황들도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요, 영적 세계의 신비한 질서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만 해당되었습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진단하시고 치료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처방전을 손에 들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입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호와와 행적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라며 중보합니다.

### 아시아 최대빈민가, 코로나19 전파 막아

(1면에서 계속)

엄격한 통제 조치와 광범위한 검사,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복합적인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몸바이 시당국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자 추적과 검사, 격리 등을 공격적으로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사 의지였다. 덤고 갑갑한 의료용 보호복을 입은 의료 관계자가 각 집을 방문해 검사를 벌이는 초기 검사 방식은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되자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웠다.

이후 각 간의 의료센터에서 의사를 포함한 5-6명 정도의 의료진이 일일이 주민

80여 명의 체온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다. 현재까지 이런 방식으로 증세 여부 검사를 받은 사람은 36만 명이 넘는다.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곧장 학교, 결혼식장, 스포츠 시설 등 지역 내 마련된 격리장소로 옮겨졌다. 지금까지 이렇게 격리 조치된 사람의 수는 1만명을 넘어서다. 만약 격리시설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면 지역 내 위치한 병원 4곳으로 이송됐다.

이곳 빈민촌에서 의료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암루타 바와스카는 BBC와 인터뷰에서 "감염 전파 상태를 확인하는데 간이 의료센터가 큰 도움이 됐다"며 "이제 사람들은 어떤 구실을 찾아서라도 스스로 이곳에 찾아와 검사를 받고자 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나이를 부풀리는 사람도 있다. 어떤 때는 단순히 옆에 앉은 누군가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두려움과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986-4400 (대표)  
Fax: (718) 986-0074 (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목사의 목상

###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اید장로교회)



### ‘마사다’의 교훈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였을 때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느낀 바가 있었다. 그곳은 내가 세 번 째 간 곳인데 엄청 높은 돌산으로서 사방이 다 절벽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는다. 마사다는 원래 헤롯 대왕이

자신의 은신처로 준비한 곳이다. 앞으로 자신에게 급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난을 하려고 지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헤롯은 그곳에 어머니 마한 식량 창고를 짓고 말린 과일과 곡식들을 모아두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저절로 한 곳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두게 하였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그곳을 써보지 못하고 죽고 그 후에 AD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군과 같은 열심당원들이 그곳으로 도망을 쳐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곳이다.

그들이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연적인 요새였고 이미 물과 많은 곡식과 마른 과일들이 양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리로 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버티며 로마에 항전하였다. 그러나 로마는 그곳을 점령하기 위하여 나중에는 몇 달 동안 토성을 쌓았고 마사다를 점령할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손에 죽기보다는 자신들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자신들에게 남겨진 모든 양식을 태워 버리고 몇 사람의 대표를

세워 그들로 자신들을 죽이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죽이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와 어린이 등을 증인으로 남겨놓게 하여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전하지만 그 이야기의 목적은 비슷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나라를 사랑하여 로마에 끝까지 항전하다가 용감히 죽은 자들이 있으니 후손들도 그들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마사다로 올라가서 마지막 훈련을 마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죽은 열심당원들의 정신을 기리며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없게 하자!”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

들이 그런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면 정작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증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통하여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 울며 뒤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이스

라엘 백성들은 도륙을 당할 것과 예루살렘성과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원수의 손에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요새 온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을 당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노력 이전에 우리 믿는 자는 기억할 것이 있다. 마사다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황폐하고 병든 지금의 우리의 삶도 고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도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이 없도록 막아주실 것을 믿는다.

david2lord@hotmail.com

## 푸/른/초/장

### 최창섭 목사

(뉴욕에벤에셀선교교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2년간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애다는 마음으로 사역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다. 호세아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책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15회나 기록되었으며, 핵심주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며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 당시 그 백성들은 종교적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 우상숭배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다. 지식과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닌 경험적 하나님을 알라고 한 것이다.

호4:1-2,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나?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공휩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는 치유 해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호6:6,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몰랐기에 참 예배가 아닌 짐승만 잡아 죽여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에만 열심내고, 종교의식만 행하면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며,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착각했다.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은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온 백성들이 큰 환란을 겪게 되자, 그때서야 자신들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다는 것을 늦게 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선민임을 자랑

누구신가?

#### 1. 사랑하시는 하나님

호3: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견포도 띠를 즐길 자라도 여호와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라 하심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음란한 고멜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간

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고, 악만 행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지옥 불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호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심판하시는 하나님

호6:1,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이는 선민의 사명을 망각한 무책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큰 복을 주셨건만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던 그들에게 오래 참아 주셨으나, 그들은 회개

기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은 단지 나무에 대한 것이 아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신 것은 종교적 제사가 아닌 신앙의 열매였다.

마7: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고, 맡기신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넘치는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온갖 축복을 다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열방에 전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영혼구원의 책임을 주셨는데, 그들은 선민의 의식과 특권만 자랑했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신실하지 못하다.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망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누가 알

짜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왜 찢으시고, 치셨나? 그것은, 하나님 대신 우상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무책임한 그 백성들을 채찍질하심은 그들을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닌, 그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다. “이후 후, 사후 후”란 하나님의 치유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면 진노하시며 때로 무섭게 채찍질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는 오래 가지 않으신다. 자신들의 허물과 불순종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 속히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매 맞는 상처를 싸매주시며, 다 치료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시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회개하면”이다. 출15: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종교적인 하나님,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체험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신앙과 삶이 달라진다. 예배와 기도가 달라진다. 교회생활과 섬김이 달라진다. 인격과 언어가 달라진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

여러분! 더 이상 심판의 대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상처 나고 찢겨진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고침을 받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온전히 열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힘써 여호와를 알자

### 호세아 6장 1-3절

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대대로 계속되리라 기대했던 허황된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믿음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을 바로 알면 참 신앙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 기도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된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실이 일치된다. 겸손하게 된다. 주의 일에 협력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복음의 사명에 빛진 자의 심정으로, 늘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음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우상숭배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 불에 던져질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시나?

요일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고 돌이킬 기회를 상실했기에 결국 심판의 채찍으로 내리 치셨던 것이다.

신32:39, “이제는 나 곧 내가 그 인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호5:1,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깨달으라.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마21:18-19, “우리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날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길가의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셨으나 잎사귀밖에 없음을 아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여

겠는가? 심판과 지옥형벌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시라.

고후6:2,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이 아닌, 지금 예수 믿어 죄 사함과 구원받을 때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요5:24,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 3.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호6:1-2,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

## 아시아 최대민민가...

(3면에서 계속)

4월 이후 1만1000건이 넘는 검사가 이뤄졌다. 물론 아직 이 빈민촌 어딘가에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몸마비를 포함한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코로나19가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반면

에 다라비는 전파 속도를 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해당 지역 의료 담당자들은 믿고 있다.

다라비가 언론의 관심을 받는 지역이라는 사실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 지역은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인 ‘슬럼독 밀리어네어’ 제작에 영감을 준 장소로 알려지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또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자들과 전 세계 도시 계획가들이 이 지역의 10억 달러 규모의 비

공식 경제와 도시 동태성에 주목해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지역에 설치된 간이 의료시설에는 의사들이 모여들었고, 부유한 지자체와 정치인들 그리고 비영리단체들은 수천, 수만개의 무료식사를 제공했다. 또 할리우드 배우들과 사업가들 중에는 장갑, 마스크, 약품과 산소호흡기 등 의료 장비를 기부하기도 했다.

#### 확산 통제의 이면

다라비는 지난 수십년간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들어온 곳이다. 봉쇄조치가 시작된 이후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상실된 15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금불이 파우를 저장 잡히거나 모아둔 돈을 잃거나, 심지어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있었다.

‘에이콘 인디아’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변호사 비노드 세티는 “너무나도 가혹한 통제조치에 다라비의 경제가 무너졌다”며 “이곳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그들은 빈민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일을 구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상황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걱정거리는 남아있다. 주민들이 손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남아있을까? 또

이곳에 있는 공장들이 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할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남아있을까?

이곳에 2차, 3차 유행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오랜 기간 봉쇄조치가 지속돼야 할까?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비영리단체들은 얼마나 더 오래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 하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나는 왜 "Black Lives Matter" 조직을 반대하는가?

기독교 가치관과는 가장 상반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공산주의"에 뿌리를 깊이 둔 여러 폭력과 폭동들이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이름아래 미전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펼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자들이 나온 사람들 중 공산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를 현실화시키겠다고 나온 후보자들이 적어도 여러 명 되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날 워싱턴Capitol Hill 앞에서 미국 국기를 짓밟고 불태우며 "America was never great, Black Lives Matter"이라고 외치는 BLM 조직아래 움직이는 사람들.

인사화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 Black Lives Matter는 흑인들을 가장 억누르고 세상을 억누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막시즘(Marxism), 사회공산주의 사상에 깊은 뿌리를 담고 탄생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Black lives matter라고 말하면서 흑인들의 아픈 과거를 이용함으로써, 정작 흑인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속에서 올바른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절대로 없는 단체이다.

2. W. B. Allen 박사(Ph.D)는 UrbanCURE의 운영책임자입니다. 그는 말하길 "지구



상에서 '인간의 마지막 소망'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다. 그런 보수주의자들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헌신의 결과물로 나온다. 선의와 믿음, 자유, 책임의 가치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히면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상식에는 설명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

1. Kevin McGary(Frederick Douglass Foundation 대표)는 그의 최근 청소년 대상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Black lives matter TOO!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 그렇다. 내가 말한 "...도"에 집중하여 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자매로, 우리는 피부색깔로 대화를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과 각각 뛰어난 아름다운 고유의 한 인격체로 대화를 나눠야한다. Black Lives Matter는 조직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단체이다. 역사를 제대로 아는 흑인들은 Black Lives Matter가 오히려 흑

장합니다. 아래는 알렌 박사가 한 Speech를 번역한 것의 일부입니다.

"나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미국인으로써, 미국의 건국이 인간사의 발전과 인간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처럼 힘든 시기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서(성경)로 눈을 돌려 분별해야 할 때이다. 더욱이, 그 실현에 따르는 약속의 이행은 개인의 힘과 종교적 신념의 안전에 의해 알려지는 자기 기관의 가치가 꾸준히 실제 물질적 진보와 도덕적 진보의 기회를 강화해온 미국의 문명의 일관된 진보에서 명백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노력은 이 나라의 정치 헌법에 투자된 희망의 기초를 훼손하지 말고 강화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신중한 판단의 문제이고 영적 분별의 문제다.

미국은 세계를 위한 등불로 쓰여지고 있기에, 어떤 것이든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은 인류의 행복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BLM은 흑인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며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3. Brian Bledsoe는 텍사스 출신의 Heritage Action Sentinel 소속이며 아래와 같이 강조합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보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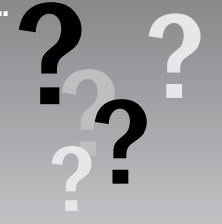
의자로서 나는 왜 보수주의자인지에 대한 질문을 늘 받는다. 나는, 우리가운데 가장 순수한 생명인 태아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기에 보수주의자이다. 나는, 성공한 삶을 산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기에 보수주의자이다. 나는, 이 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기에 보수주의자이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무기소지 권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수정헌법 제2조를 수호해야 한다고 믿기에 보수주의자이다. 물론, 잘못 사용되는 것을 고칠 수는 있으나, 자유를 빼앗는 행위는 공산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동의하던 아니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보수주의자이다. 나는, 이 나라를 위대하게 했던 모든 것을 위협하는 사회주의 기반(강제적 통제) 정부의 그림처럼 보이는 속임수에 반대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이다. "Black Lives Matter 조직은 흑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흑인을 이용하여 사회공산주의 사상을 펼치려는 정치적 조직이기에 이런 사회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좌파와 동의할 수 없기에 나는 보수주의자다. 결론적으로 수십년, 수백년의 역사를 볼 때 창조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법을 최우선 순위 하는 보수주의는 모든 삶의 분야에서 가장 공평하기 때문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창세기 6장 2-4절 노아홍수의 원인이 천사와 인간의 결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유전자 변형이 되어 네퍼림, 즉 거인을 낳았다는데 천사가 사람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는지요? -하버에서 이희은

A: 창세기 6장 1-4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는 오랜 기간 여러 학자들 간의 논란거리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3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나 귀신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대 왕이나 통치자라는 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셋의 후예라는 설입니다. 손석대 교수의 창세기 강의를 보면 이것을 주석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설은 초기 유대의 주석가들을 비롯하여 70인역, 사해사본, 고대 교부 중에 저스틴, 이레니우스, 알렉산더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등이 주장하는데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는 시편 29:1, 오바다 1: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고대 왕이나 치리자라는 설은 2세기 경 유대인들 가운데 천사들이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 홍수 이전의 통치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셋째로 셋의 후예라는 설은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해석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아담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계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후예였습니다(창4:26). 전통적인 해석은 세 번째가 바른 것으로 봅니다.

#### 창:1-4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예로 보는 것이 전통적 개혁신학 해석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명칭은 천사들에 대해서도 사용하지만(욥 1:6, 욥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신14:1, 호11:1).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하는데 여기서 "모든"이 주의해야 할 만한 단어입니다.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 불신의 가인의 후예들과 마찬가지로 불신결혼, 혼합 결혼하였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여자라면 다 자기의 아내를 삼는 이 일부다처주의나 도덕적, 성적 타락을 보시고 육체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홍수를 일으켜 심판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치상 대리인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동물적인 본능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날이 일백이십년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일백이십년 후에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120년의 생명의 유예를 주신 것입니다. 한국의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의 창세기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천사를 가르친다는 해석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 이런 해석은 그 당시의 경향과 부합하지 않는다. 천사실이 옳다면 노아홍수는 인류타락사가 아니라 천사타락사로 돌변하는 셈이니 자연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논리를 유다서 6-7절로 본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그 도시 사람들이 천사들처럼 다른 색을 따라 간음하였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색은 헬라 원어로 보면 "살코스 에텔라스"로 다른 육체라는 뜻이니 천사들은 육체가 아니므로 다른 색(육체)이란 말로 그들과 개조시킨 말로 볼 수 없다.

(10면으로 계속)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2020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항공대학(원): B.S. in Aviation Management/Flights,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경영대학(원):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리더십대학원: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국방대학원: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Ph.D. in Leadership

상담대학원: M.A. in Counseling, Ph.D. Counseling Psychology

교육대학원: M.A. in Education, M.A. in TESOL,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신학대학(원): B.A. in Theology, Master of Divinity, Doctor of Ministry, Ph.D. in Leadership

음악,문화예술대학원: Master of Music, Doctor of Music, Doctor of Musical Arts, Ph.D. in Leadership

###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mailto:wde@midwest.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사삭(SASAK)

롬 박 (Lombok)의 작은 인도네시아 섬들은 2백만 이상 되는 사삭족들의 고향이다. 롬박은 순드라 군도의 일개 섬으로서 발리와 솜바와 사이에 위치하는 섬이다. 사삭족들은 오래전부터 두 분류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웨투텔루(Wetu Telu, 전통적 사삭) 또 다



른 하나는 와투리마(Waktu Lima, 강력한 이슬람교 사삭)로 분류된다. 다년간 군주의 영토 싸움으로 분리된 섬은 발리족들이 롬박을 정복하고 사삭족들은 노예 상태로 몰락했다. 1894년경 화란인들이 롬박에 진입하고 발리족들로부터 사삭족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사삭의 원주민간의 분열을 가져오고 이런 분열이 공식화됐다. 화란이 지정한 사삭 행정관들은 보통 와투리마족이 선택

됐는데 이것이 왜투텔 족들을 격분시켰다.

삶의 모습

서에서 동으로 뻗은 중앙 평지가 롬복 섬 산악지대를 갈라지게 한다. 몇몇 사삭족들은 산악지대에서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섬의 비옥한 중앙평지에 밀집해 산다. 사삭족들은 대개 습지 쌀농사꾼들이다. 대개는 몰소나 소들을 이용해서 땅을 일귀 수작업으로 추수한다. 대두, 옥수수, 고구마, 아자열매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쌀, 커피, 담배, 땅콩, 양파는 팔기 위해 재배한다. 사삭족의 상당수는 소상인들이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떠돌아다니는 상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향이나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들은 파트 타임이나 계절별

기술자들이다. 그리고 대장장이들도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삭 마을에는 수백명에서 1만5천명 정도의 주민들이 있다. 장터와 이슬람교사원(모스크)들은 주로 마을 중심부에 있다. 동네 마을들은 주요 마을 대로를 둘러싸고 있다. 들판은 마을로부터 서로 떨어져 있다. 전형적 가옥구조는 단칸 혹은 방 두개로 지으며 초가지붕에 창문은 없고 잘 굳어진 흙벽, 플랫폼에 지어져 있다. 대나무와 흙과 엮은 풀 또는 아자열매로 된 벽을 대나무들이 받쳐준다. 현대식 가옥은 나무나 콘크리트 그리고 철로 된 지붕을 만든다. 여러 개의 방과 몇 개의 창문들이 포함한다. 사삭족 사회체제는 세 부류로 구성된다. 두 부류는 귀족사회이고 하나는 평민사회다. 귀족과 평

민들은 보통 차별되게 분리된 이웃으로 산다. 남녀 모두 농장에서 일하는데, 남자들은 주로 땅을 정리하고 건축과 관계수로를 고치거나 농작물을 지키고 땅을 갈고 잡초는 일들을 책임지며 여자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가정살림을 도맡아 한다. 대부분의 결혼은 일부일처제이고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결혼은 주로 사촌지간 맺어지는 게 보통이다. 전통적인 예술행위에는 징이나 북과 나무로 만든 실로폰 같은 악기를 만드는 일이 포함되며, 음악 연극, 그림자 인형놀이와 이슬람식 노래 그리고 춤 문화적인 장기를 포함한다. 신앙 사삭족은 99%가 이슬람교며,

대부분 촌락마다 이슬람교 사원이 있고 많은 종교 학교가 있다. 외딴곳에 있는 적은 수의 사삭 마을은 아직 전통적인 조상 숭배하는 의식이 남아 있다. 그들은 '생명위독의식'(life crisis ceremonies)과 농사축제 행사를 연다. 질병의 원인이 악령, 마술, 초자연적 보응에 기인한다고 여긴다. 하나 그런 믿음은 현재는 많이 감소했으며 점진적으로 이슬람교 신앙으로 대체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사삭 주민들간에 선교단체가 다섯이나 있지만 아직 성도는 500명도 채 안 된다. 1백만8천명 인구 중 77%는 복음을 전혀 들어 보지 못했다. 현재 성경은 부분적으로만 사삭족들 언어로 번역돼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크리스천 87%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바나리서치는 미국 성인과 미국 크리스천들이 미국을 보는 시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바나리서치는 크리스천을 "practicing Christians"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적어도 한 번의 예배에 참석했으며 신앙이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데 강하게 동의하는 정체성을 가진 기독교인을 의미한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으며, 축복받은 나라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세계 지도자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의 80%와 미국 성인 58%가 "역사적으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다"는데 동의했다. 크리스찬들은 51%가 강하게 동의했으며, 29%는 어느 정도 동의했다.

한편, 미국 크리스천의 87%와 미국 성인의 52%가 "역사적으로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동의했다. 크리스천의 64%가 강하게 동의했으며, 23%가 어느 정도 동의했다. 또 크리스천의 57%와 미국 성인의 32%가 "역사적으로 미국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됐다"는데 동의했다.

크리스천의 87%와 미국 성인의 75%가 "역사적으로 미국은 다른 세계의 지도자"라는데 동의했으며, 크리스천의 83%와 미국 성인의 75%가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민 국가"라는데 동의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은 소수인종을 억압했는가"하는 질문은 크리스천 48%가 동의했으며 28%는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 성인들은 50%가 동의하고 21%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 설문 조사는 2,88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인종차별 시위 전에 조사됐다.

미국장로교, 첫 유색인 공동총회장

미국장로교(PCUSA)가 지난 20일 인디언과 흑인을 공동총회장으로 선출했다. 흑인과 동양인이 공동총회장 2명 중 1명에 선출된 적은 있지만, 공동총회장 2명이 모두 유색인종으로 선출된 것은 교단 역사상 처음이다. 인디언이 총회장에 오른 것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한 PCUSA는 엘로나 스트리트 스튜어트(왼쪽 사진) 장로와 그레고리 벤틀리(오른쪽) 목사를 공동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두 사람은 각각 인디언 여성 평신도와 흑인 남성 목회자로 440명이 투표한 선거에서 304표를 얻어 당선됐다.

PCUSA는 공동총회장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년 임기 동안 두 명의 총회장이 편의에 따라 기간을 정해 업무를 맡게 한다. PCUSA 총회장은 한국 장로교단과 마찬가지로 겸임제다. 스튜어트 총회장과 벤틀리 총회장이 각각 레이 크 앤 프레리 시노드(노회의 상위조직)의 총무

와 엘라베마주 헌트스빌 펠로십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다.

PCUSA가 공동총회장 2인을 모두 유색인종으로 선출한 배경에는 지난달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다. 비무장 상태였던 플로이드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

PCUSA 소속으로 인디언 사역을 하는 안맹호 목사는 23일 "플로이드 사건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PCUSA가 유색인종으로 구성된 팀을 공동총회장에 선출한 건 인종주의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인디언이 총회장이 된 건 1789년 미국장로교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 소수민족 사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총회장은 델라웨어 난티코크 인디언 부족의 일원이다.

중국선교회 "이단 '전능신교' 발호..."

중국 교회와 선교회 연합단체인 소금과빛중국연합선교회는 지난 1일 '전능신교는 사이비 이단 종교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전능신교는 중국 하이룽장성 출신의 자오웨이산이란 사람이 만든 사이비 종교로 그는 종교 서적, CD 판매를 통해 기반을 잡았고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아침에 신이 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잘 모른 채 교주로 받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선교회는 또 "전능신교는 사교, 괴력난신, 종교의 이름을 빌려 축재하고 음행하며 명예를 탐한다"며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모두 정통 교리에 반하고 가치관을 왜곡하며 반인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단주의는 종교가 아니며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극단화하려는 세력은 반드시 선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도 이들 이단 사이비를 제대로 선별, 이들이 종교를 교란하고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 확진자 하루 21만명...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일 전 세계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2326명을 기록했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메리카 대륙의 확진자가 12만9772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60%를 차지했다. 이날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5만3213명, 브라질은 4만8105명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24시간 동안 1만14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제 재개를 시작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 다시 봉쇄조치가 내려졌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지역의 펍, 카페, 식당, 호텔 등이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했지만 지난주 감염자가 폭증한 중부도시 레스터는 봉

쇄됐다. 학교가 문을 닫고 식료품점과 약국 등을 제외한 비필수 영업장은 휴업에 들어갔다.

스페인 역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관광객에게 문을 열었지만 일부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북동부 카탈루냐주는 주민 20만명이 거주하는 레리다시 등을 다시 봉쇄했다. 지역 간 이동이나 10명 이상 모임 등이 제한된 상태다.

호주도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다시 4주간 봉쇄령이 내려졌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의 분석을 인용해 "이학적 돌파구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년 봄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6억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면서 "그중 140만~370만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5년 거주 홍콩인에 시민권발급 추진

영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반발해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 '총리 질의응답'에 참석해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은 영중공동선언의 중대한 위반으로 여겨진다"며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의 일국양제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추진하자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기준 BNO 여권 소지자는 34만 9881명이다. 과거에 소지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BNO 여권 소지자는 5년간 영국에서의 거주와 노동이 보장된다. 5년 후에는 정부가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고 다시 1년 후부터 시민권 신청을 허용한다.

영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수개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도미니 라브 영국 외무장관 역시 전날 홍콩보안법이 공표된 뒤로 면밀히 평가했다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자율성과 홍콩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영중공동선언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라브 장관은 또 "중국은 홍콩보안법 추진 과정에서 홍콩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홍콩을 외면하지 않고 홍콩인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BNO 여권 소지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홍콩인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슈퍼부양책 효과...코로나에도 빈곤 줄어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업률이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약 계층의 생계 타격은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작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효과로 분석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6일 미국 시카고대·노트르담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미국의 최근 실업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지만 빈곤 수준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경기 침체는 빈곤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 2일 발표된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6월 실업률은 11.1%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 인구조사국의 최근 조사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때때로 혹은 종종 먹을 것이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는 미국인이 이전보다 2% 포인트 늘었다. 임대료를 낼 수 없는 미국인은 계속 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급에 '파산'을 검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침체가 급격한 빈곤 증가로 이어지는 않았다는 게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4, 5월의 빈곤 수준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그 이유로 정부의 재정 정책을 꼽았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2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경기부양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된 경기부양책의 2배 규모다. 경기부양패키지법은 1인당 최대 1200달러 지급,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는 일부 구직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번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은 이달 말 종료된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으면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온라인 수강 유학생 떠나라"...

미국 정부가 올해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한 국 유학생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유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재학 중인 미국 학교가 100% 온라인 수업을 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미국 내의 대학 연합회나 이민 단체들이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해 이번 지침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미국 대학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지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학교들은 이번 가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외국 유학생들의 학비를 불모로 미국 대학들에 오프라인 개강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미국 국무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된 유학생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F-1 비자(학생 비자)와 M-1 비자(직업 훈련 비자)를 받은 유학생들에 대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좋은 교회

한국에 세계 최대의 규모의 교세를 지닌 교회가 상당 수 있다.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대형교회가 생겨났다. 이때부터 '지역 교회'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면 거리와 상관없이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각 교회마다 교회의 수적 성장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교인들이 좋아할만한 '그 무엇'을 갖추는 일에 매진한 것이다.

물론 모든 교회가 커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소형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실정이다. 개척에 실패한 뒤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목회자들은 언제나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늘어나기 바라고 있다. 긍정적으로, 대부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교회 성장이 곧 목회 성공이란 생각에 사로잡힐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어그러진 인식을 지니게 된다. 목회가 우상으로 전락되는 심각한 문제될 수도 있다.

교회의 대형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소형교회만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는 좋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외형적 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교회는 각성해야 한다.

'이런 교회가 좋다!'는 의견을 지닐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는 넘지 말아야 한다. 현대교회가 진통을 앓는 이유 중 하나는 '좋은 교회'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절대화 시키려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경험과 가치에 따라 그 기준이 각기 달라 의견이 쉽게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자존심과 감정의 대립 구도로 인해 몸살을 앓는 공동체가 허다하다. 성도의 덕을 상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놀림거리로 전락되기도 한다.

서구적 교회

교회는 특정 지역에만 영존하지 않았다. 복음은 출발부터 항상 타 지역을 향해 이동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그 역사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이 전달된 새로운 지역의 독특한 사회와 종교, 그리고 문화의 상황에 순종하고,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페르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즉 기독교의 기원은 서양이 아니라 중동(中東)지역이다. 중(Middle)과 동(East)이 합쳐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서, 여기에 서구와 미국이 중심

된 서양인들의 관점이 지리적 구분에 드러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극동(極東, the Far East)에 서아시아와 동아시아가 있으며, 그 중간에 중동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History is written by the victors)"라는 문구의 의미가 그대로 반영된 듯하다. 실제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일반 세계사의 대부분은 서양인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중세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로부터 1세기 정도가 지난 뒤 17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18세기에 절정을 이룬 인간 중심의 자유사상이 유럽의 영적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세속화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기나긴 세월동안 서구 사회의 축이 되었던 기독교의 영향력이 날로 약화되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약 1세기가 지난 뒤 교인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인간중심의 사상상으로 인해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적절한 시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영적 각성 운동을 계기로 기독교 역사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전

몰려 있던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와 장로교 선교사 호레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동반했으며 그 후로도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20대의 젊은 목사들로서 선교 경험이 없었기에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1890년, 조선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사역하던 베테랑 선교사 존 네비우스(John L. Nevius, 1829-1893)를 초빙하였다. 그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약 2주 동안에 걸쳐 강의와 그가 저술한 서적을 통해 한국 교회에 가장 적합한 선교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그 결과, 1890년에 '네비우스 선교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네비우스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전7:20)는 말씀을 가장 기본 원리로 삼았으며,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그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서 그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가장 집중한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즉 시종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로 세울 자들을 소수를 선별하여 성경공부반을 만들어 교육시키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경 실력을 갖춘 교회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성경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성경공부와 부흥회를 합쳐놓은 성경의 모임이었다. 그 당시 신앙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 성경공부에 정열을 쏟았다.

성경적 교회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복음은 한 지역에 영존하지 않고 타 지역을 향해 이동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쳐준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진리보다 인간의 '그 무엇'을 절대화시키는 영적 타락에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좋은 교회는 성경의 진리가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성경을 율법주의의 날카로운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 가르침에 함께 귀 기울이는 겸손이 있는 공동체이다. 그 분의 진리 앞에서는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과감히 내려놓는 용단이 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을 함께 의지한다. 무엇보다 심자가 복음이 통치한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15)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2) - 좋은 교회란?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서방교회의 위치가 확고해지기 시작하였다. 395년에 로마제국이 동과 서로 분열한 뒤, 서로마제국이 476년에 멸망하

이 시기부터 교회는 서양사와 분리되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다뤄지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서양사를 기록한 역사학자들의 편견

통적 신앙의 굴레 안에 안주하던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열정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들은 전도와 구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다. 활기를 잃었던 교회가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겸손 공동체 인간의 '그 무엇'을 절대화시키는 영적 타락에서 개혁돼야

였지만 기독교는 서방에서 더욱 융성하였다.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이 과거 서로마 지역으로 이동하여 점령한 뒤 로마를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으로 삼았다. 정치인들이 로마문화와 법을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를 환대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국민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좋은 수단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054년, 라틴어 문화권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와 서로 파문함으로써 영원히 결별하였다. 그 그렇지만 동방교회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서방교회에 비해 다른 독특한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을 궁극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예배 양식 등 외형적 면에 관심이 집중하고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혼합주의적 형태의 신앙을 중시하던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 것이다. 변질되었던 동방교회의 대조적으로, 서방교회는 전통적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교회가 서구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침체되었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서방교회가 새로 출현한 세속적 문화에 의해 잠식당한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였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풍토가 생겨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서구로부터 북미 지역으로 옮겨졌다. 서양사로부터 냉대를 받던 교회가, 식민 개척지였던 미국 역사의 중심에 다시 등장한다. 유럽의 영국교회와 화랑교회로부터 수입되어 신대륙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으로 새롭게 정착한 것이다. 청교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으며, 향후 기독교는 독립전쟁과 미국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폭넓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기독교는 국가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세속화 되었던 유럽과 달리 종교에 뿌리를 둔 사회를 형성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초기 미국교회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였던 청교도 정신을 기초로 세워졌다. 어렵고 힘든 개척 시대를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18세기 말에는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선교사 협회들이 세워졌다. 그 결과, 19세기 말 미국에 뿌리를 내린 기독교에 의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미국교회가 복음을 전달한 시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미국교회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던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대서양을 건너왔다. 인간의 주관적 생각과 느낌을 중시하는 신앙의 축을 중심하는 교회들의 영향력이 커져갔다. 결국 성경을 중심하는 전통적 교회는, 이들로부터 심한 도전을 맞고 이겨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적 교회

1885년 4월 5일, 미국교회로부터 복음전도자로 파송을 받은 2명의 선교사들이 첫 발을 디뎠다. 일본에 머

미국적 교회



Table with 12 column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Columns include: 갈보리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델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샬럿장로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안디옥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교회, 엘파소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온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주 예수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리더십 코멘터리 (114)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미래리더십과 목회

담임목사와 부목사적 맞바꾼 목회자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달라지고 교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요동쳤다. 이런 상황은 팬데믹이 물러간다고 해도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방식에 더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은 교회시스템을 바꾸고, 팬데믹은 목회자들의 미래목회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다.

나이는 열네 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노지훈 목사와 조정환 목사는 꿈이있는교회에서 동역하며 좋은 믿음의 친구로 함께 해왔다. 이제 두 사람은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자리를 맞바꾸었다. 익산에 위치한 꿈이있는교회 성도들은 특이한 경

도 최첨단 과학기술에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래 목회현장에서는 목회자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목회자들이 모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미래목회의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선 빅데이터 기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 목회자들 스스로가 사역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해야 한다. 미래 목회현장은 큰 어려움을 유발시킨다. 목회 소명이 없다면 엄청난 변화를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소명과 사명에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사역의 동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미래목회의 목회자들은 어떤 간단

쌍방향적으로 깊이 몰입할 수 있기에 미래목회는 예배와 설교의 내용에 깊이가 있어야 한다. 예배의 내용은 구원의 감격, 감사와 경배, 미래 소망을 포함하고 교회력에 따라 기도와 찬송, 말씀과 성찬, 헌신과 파송 등 레퍼토리에 대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나누라. 교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비전의 결핍, 전통의 집착, 리더의 자질문제, 인간적인 욕망에 의한 목표설정 등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교회의 갈등은 사역자와 직분자의 역할이 모호하여 부서질 가능성이 높을 때 마찰이 빚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을 명료히 하고, 정기적인 훈련과 피드백을 통해 직분자의 역할이 교회의 필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목회자의 비전이 성도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할 때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요구된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ABC 멀티전략을 가져라. 모노(Mono)에서 멀티(Multi), 즉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멀티전략이 필요하다. 이 구조가 좀 더 확장되면 목회, 행정, 헌금, 전도, 예배, 소그룹 등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목회의 성공은 ABC에 있다.

## 디지털 세상을 복음의 기회로 여기고 평신도 영적수준을 끌어올려 팀사역 깊이 있는 설교, 커뮤니케이션 강화, A(기도)B(말씀)C(돌봄) 멀티전략 추구

협을 하고 있다. 전에 듣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광경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중이다.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역할과 위치가 바뀐 것이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아름다운 목회동역으로 지역 내에서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미래목회 환경의 변화와 리더십

목회자들이 직면한 미래목회 환경의 변화는 무엇이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로, 목회사역의 다원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의 목회환경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 목회환경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전문인들을 만나 상대해야 하는 유능한 감독관 역할을 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보다 다양한 사역들과의 만남에 익숙해져야 한다.

미래목회 현장의 변화로 교회와 사회의 디지털화를 생각할 수 있다. 미래목회 환경은 교회가 다양한 IT 컴퓨터 기술을 사용할 뿐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

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중요한 원리를 설정하여 그 원리를 중심으로 목회에 임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목회현장에서는 어제의 해답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성경적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해서 목회의 큰 방향성을 잡아가야 한다.

미래목회를 위한 코멘터리

미래목회에는 평신도를 영적리더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의 도전 가운데 많은 교회가 공간 위주의 오프라인 교회에서 가상 온라인 교회로, 주일 교회에서 주중 교회로, 메가(Mega) 교회에서 메타(Meta) 교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미래에는 어떤 형태의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미래리더십과 목회에 대해 생각해본다.

첫째로, 질적 수준이 높은 예배를 준비하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온라인예배 또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공간보다 시간, 양보다는 질, 넓이보다 두께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 공간적 장소는 달라도 동일한 시간에 즉각적,

Attendance(교인수), Building(건물), Cash(예산).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회 성공은 Amen(기도), Bible(말씀), Care(돌봄)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교회의 변화는 끊임없는 기도의 투자에 비례해서 일어난다.

팬데믹 동안 교회가 물리적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놀라워하는 이들이 많다. 미래목회에서는 교회건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은 디지털 세상을 악의 저주보다는 복음의 기회로 여길 것이다. SNS 라이브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예배를 생중계하는 목회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가 약하다고 원망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온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디지털 세계에도 악한 것이 존재한다. 미래리더십과 목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지금 어떤 목회자들은 미래목회를 준비하기보다는 전염병이 빨리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다가오는 디지털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sondongwon@gmail.com

##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 순종이 축복입니다

디지털 전환(DT)이 생활 전반에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가 시대를 이끄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로봇을 통해 능동적 판단이 이뤄지는 이른바 스마트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촘촘한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순종'을 가르치다 보면, 순종의 성품이 낡은 구시대 산물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결과를 추론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오차를 줄이는 삶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믿는 문화 속에서 순종은 아주 비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순간 이성과 논리를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사고 방식에 물들어 지냅니다. 무언가 정보의 망원경으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망할 것 같은 불안감, 이해가 되는 것만 내 것으로 여기는 삶이 순종을 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풍조는 교육계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완벽한 생각, 완벽한 지식만이 완전한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지요.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일 뿐입니다.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순종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기쁘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성품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약속과 질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는(이사야 31:5)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라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면 자녀가 속한 환경 속에서 창조주의 약속과 질서를 배웁니다. 그분의 성품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갖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져서 평강하고 평강한 축복(사26:3)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온갖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유혹을 뿌리치고 현명한 지시를 통해 지혜를 배워 더 큰 리더로 성장합니다.

순종의 열매는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분의 지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가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되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

goodtreeusa@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b>뉴욕몽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약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b>뉴욕새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약예배: 오전 10:45 주일3부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1주, 3주)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장로회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50 청년예배: 오후 3:2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30	<b>윈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 목회서신

##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널리 알려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해석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그의 주장은 올바른 역사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안의 역사도, 일반역사도 그러합니다. 또한 개인의 역사나 공동체의 역사, 나아가 국가 세계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도전들을 받아왔지만 그 도전에 잘 응전함으로써 인류 역사는 발전하

고 문명은 발전하여 오늘의 문명시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심각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응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위기가 기회’란 말은 사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영웅호걸들은 물론 믿음의 영웅들은 대개 심각한 위기의 시

대에 출현하여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간 선견자적 용기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IMF 때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크게 더 잘 된 사람들과 기업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국가가 다스리지 못하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개인들도 국가도 세계도 모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난감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도 생명의 등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험의 시간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실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늘 직면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기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우선 철저한 회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 일종의 우리 하나님의 경고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일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언제 부터인가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부

모님들은 가난하고 힘겨운 시기에 산에서 등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요해지고 평안해진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들이 당하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위기 앞에서 이전의 삶과 수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자기준비를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간혀 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자유하고 힘들고 어렵고 넘쳐나는 시간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하여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되게 하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 갇힌 인생 위기에서 ‘천로역정’이란 고귀한 결작품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밧모 섬이란 감옥에 갇혀 있는 위기 때에 ‘요한계시록’을 계시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의 위기에서 그 유명한 ‘홍해바다 갈라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상하지 못 하였던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힘겨운 역사적 도전 앞에서 굴하지 않고 슬기롭고 용기 있게 잘 응전한다면 오늘 우리의 역사적 위기는 역사적인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46교회 지원...퀸즈장로교회 5만불 쾌척

### KAPC 제44회기 첫 사업 '어려운 교회 돕기 운동' 전개

미주 한인 에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제44회기를 시작하면서 첫 사업으로 'COVID-19으로 어려운 교회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임원회 결정에 따라 먼저 30개 교회들에게 연례해 각 노회의 어려운 교회들을 찾도록 했다. 임원회의를 통해 노회 추천 46개 교회들에게 각 교회별로 1000달러씩 지불했다. 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보조 받은 교회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어떤 노회들은

더 어려운 다른 노회의 교회들을 돕는 마음으로 노회가 자체적으로 돕기로 하고 총회 도움은 받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총회재난극복지원금으로 5만 달러를 헌금했다. 조문휘 총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특별헌금을 해주신 교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교회들이 서로 사랑과 격려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KAPC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KAPC 총회는 상임교육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번역을 마치고 내년 3월경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OPC와 PCA에서 사용하는 영문판 원본을 OPC의 허락을 받고 지난 4년간 번역작업을 했으며 몇 차례 수정을 거치면 9월에 원고가 완성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KAPC)



온라인 생중계된 뉴욕교협 주최 '6.25 70주년 특별기도회'를 마치고 현장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하나님 주신 자유를 기억하라!”

### 뉴욕교협 '6.25 70주년 특별기도회' 개최

뉴욕교협이 지난 6월 25일 '6.25 70주년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22일부터 사흘간 포럼을 개최했던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은 이번 기도회에 뉴욕총영사관과 한인회, 참전용사회 등을 초청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한인사회와 함께 이번 기도회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첫째, 한국전쟁에 참가한 모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참전용사 가정에 특별한 은혜가 깃들기를 소망한다. 둘째, 한국전쟁에는 62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전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셋째, 70년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숫자로 6.25 70주년에 남북이 현재는 긴장상태에 있지만 화해와 평화의 깃발을 드려주며 평화통일의 희망을 기대한다”며 3가지로 의미를 설명했다.

유튜브로 생방송된 기도회는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박진수 목사, 인사말

씀 및 취지설명 양민석 목사, 대표기도 이성현 목사, 성경봉독 송윤섭 장로, 특송 이광선 집사, 설교말씀 김남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6.25전쟁 당시 7세였던 김남수 목사는 “기억하라”(신 15:15)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 없는 이념과 사상은 인간을 죽이고 파괴하는 죄악”이라며 본문을 의거해 “종되었던 것과 속량된 것을 기억하

라.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며 역사나 영적 세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행동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합심통성기도(김영철 목사/미국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이수영 목사/대한민국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심화자 목사/뉴욕교계를 위해), 참전용사 인사(하세종 미국 한국참전용사회 수석부회장, 샬 스킨 회장/영상, 한국기독교인회 회장 이필섭 장로/영상), 격려사 이준성 목사회 회장·찰스 뉴욕한인회장·장원삼 뉴욕총영사, 한인회가 참전용사에 감사패 전달, 교협이 참전용사에 선물전달, 광고 이창중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뉴욕교협은 참전용사들에게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전달했으며, 뉴욕한인회도 감사패와 함께 방호복 700벌을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 뉴욕교협, 어려운 목회자 돕기 지원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건물 렌트비와 질병 등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고 사랑의 나눔을 갖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교협회원이거나 △비회원(정식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교단장 추천서 첨부)으로 △렌트비, 질병, 기타 사유로 사역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교협 웹사이트 www.nyckcg.org에서 다운) △주보 카피 1장 △교회 렌트비 영수증이나 체크 앞뒷면 카피 1매(4, 5, 6월 중 1개)를 준비한다. 신청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교협 이메일(nyckcg@gmail.com)로만 접수 받으며 특별한 경우 우편 접수할 경우는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결과는 심사 후 개별 통지한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장 장석진 목사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하자고 격려했다. 7월 정기에배는 29일(수) 오전 10시30분이며 장소는 추후 공지한다. 동 기구 주 사역은 아동후원으로 월 30달러면 1명을 후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breadgospel.org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교회 신임총회장 김동욱 목사 부부

##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교회”

### 미주성결교회 제41차 정기총회, 총회장 김동욱 목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주성결교회 제41차 정기총회가 6월 29일부터 이틀간 화상(Zoom)으로 열렸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교회(요17:17)”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는 총대 262명중 150명이 온라인 출석 혹은 위임으로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임원선출은 단독출마로 추대됐다. △총회장 김동욱 목사(캐나다지방회, 큰나무교회) △목사부총회장 윤석형 목사(남서부지방회, 산샘교회) △사기안총기 목사(남서부지방회, 임마누엘로교회) 등이 당선됐으며, 장로부총회장과 남은 임원은 공천부에 일임했다.

신임 총회장 김동욱 목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총회장이란 직임을 맡게 됐다. 어떻게 살아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는 리더십으로 41회 총회를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당선 인사했다.

총회는 LA 총회본부 인근에 있으며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윤석형 목가 시무하는 산샘교회를 베이스로 열렸으며, 총회장으로 당선된 김동욱 목사는 캐나다에서 화상으로 예배와 회의를 인도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중 의견은 채팅창을 이용했다.

29일 오후 3시(서부시간) 교회예배에서 총회장 김동욱 목사는 “여호와와 소리”(시 29:3-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람에 휘둘리는 목사였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되고, 그 변화 받은 목사의 설교에 성도들 또한 변화됐다”며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가 된 스토리를 통해 도전을 주며 “이 시대에 교단과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13명의 직전 지방회장들을 표창하고, 개척교회인 케

넥션교회(류광한 목사)와 뉴욕하모니교회(윤상훈 목사)에게 표창했다. 이어 총회건물 매각과 매입 관련 등 각종 감사와 공로패가 증정됐으며,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기재 총회장, OMS 총재와 부총재의 동영상 축사가 있었다.

한편 총회를 앞두고 치른 과목별 목사고시에서 허원녕, 전겨례(EM), 이성현, 류성창, 이형주, 송조이, 장용진, 김중열, 김진욱, 이희진, 백경희, 김성호(EM), 박주홍, 박대준, 김지명, 정순영 등 16명이 통과했다. 인터뷰 후 총회에서 목사안수식이 열리지만 이번 총회는 화상으로 진행돼 각 지방회별로 목사안수가 진행됐다.

미주성결교회는 13개 지방회에 212개 교회, 416명 목사, 19,363명의 교인들이 소속돼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정기에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2020상반기 보고...총104명 아동후원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정기에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권캐더린 목사) 6월 정기에배가 24일 오전 10시 30분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만에 열린 셈이다.

이날 2부 회무시간에 회장 권캐더린 목사는 “아동결연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

지역을 지정하면 이들 안에 결연아동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송금마감이 3개월 더 연장돼 여유를 갖게 됐다”며 회소식을 전했다.

사역보고시간에 사무총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팬데믹 세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명 추가돼 총 104명을 후원하고 있으며 △2020년 후원자의 밤은 11월 29일(주일) 오후 5시 에벤에셀선교교회(담임 최창섭 목사)에서 열린다고 보고했다.

또 상반기 각 회원별 후원 상황 보고도 있었으며,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로부터 송금한 후원금 3천 달러를 지난 5월에 수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진하 목사(교문) 인도로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설교 유상열 목사(상임교문), 합심기도, 축도 전희수 목사(상임교문)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롬1:16-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의 존재이유는 복음 전도였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며 “팬데믹 세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십자가의 복음은 첫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둘째,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셋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라와 민족, 남녀노소를 초월하신다”며 “사도 바울의 열정인 우리 모두의 열정이 돼 복음전도에 힘을 기울이자”고 역설했다.

이날 폐회기도를 맡은 이사

## 100교회 함께 힘들었던 뉴욕을 축복 찬양

뉴욕일원 100개 교회와 기관들이 함께 뉴욕을 축복하며 “The Blessing”을 불렀다. 7월 2일 오전 9시30분 함께 불러 유튜브에 공개된 이 영상은 ‘The New York Blessing’라는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뉴욕시는 25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인종차별

금지 시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에 뉴욕시의 100개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속한 8개 언어 125명이 함께 찬양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한인교회와 기관에서는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 뉴욕수정교회, 뉴욕백민교회 등이 참가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교계 게시판

## 한기형 목사 부친 한은우 목사 소천

기감미주연회 전 감독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 담임) 부친 한은우 목사가 7월 2일 향년 96세 일기로 소천했다. 천국환송 감사예배는 7월 7일 오후 6시에 하늘문교회(1830 W. Olympic Blvd, LA)에서 민병열 목사(원로목사회 회장) 집례로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설교는 윤일흠 목사와 김영현 감독이 맡았다.



한 목사는 21세 때 자신이 태어난 강화군 지식리에 지식교회 개척, 불광동 동산교회 개척, 3번의 교회당 증축을 거치면서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들의 사표가 됐다. 1980년대 초 2년간 유학차 미국에 머물 때 나성동산교회를 개척한 후 아들 한기형 목사(기감미주연회 전 감독)에게 맡겼다. 서울신대, 목원대, 연세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나의 목회체험기' '통곡의 호소' '존 웨슬리의 교회론' '영성과 건강' 등 10여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유가족으로는 장남 한기형, 차남 한요셉과 손자녀 4명이 있다.

## 안성국 목사 별세

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이던 뉴욕능력교회 안성국 목사(사진)가 7월 2일 오전 5시3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환송예배는 5일 오후 6시 기감미주자치연회 뉴욕서지방 주관으로 뉴저지 중앙장외사에서 열렸다. 입관예배는 6일 오전 10시 웨체스터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이어 하관예배는 라우렐 그로브 묘지에서 성결대학교 미동부동문화 주관으로 열렸다.



고 안성국 목사는 1960년 생으로 성결교 신학대학과 신대원을 졸업하고 1988년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1991년 미국으로 이민 왔다. 뉴욕백영교회를 거쳐 1992년 뉴욕능력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다. 기감미주자치연회 뉴욕서지방 감리사 등을 역임했으며, 유가족으로는 안현자 사모 사이에 두 딸이 있다.

## 사역자 청빙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부서는 초등부(3-5학년), 중등부(6-8학년) △자격은 1)목회 소명의 확신과 비전이 분명하고 2)정규 신학대학교 졸업이나 재학중 3)영어로 의사소통과 설교가 가능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1)이력서 2)신대원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3)자기 소개서/사역계획서 4)추천서 1통. 마감은 7월 5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문의: cpcofny91@gmail.com

## 시니어대학 강사모집

효사랑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Covid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새 강사들을 모집한다. 신앙중심의 교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개설과목은 생활영어, 건강체조, ART, 대화교실, 민성, 컴퓨터 강좌, 난타, 서예, 소셜서비스, 음악교실, 치매예방교실, 대화교실, 레크레이션 등이다. 시니어대학은 순수 자원봉사로 운영되며 누구나 나누고 싶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고 누구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O)714-670-8004 (C)562-833-5520, E-Mail hyosarangus@gmail.com

# “나눔On(온) 캠페인” 10만829달러 모금

## GBC 미주복음방송 공개생방송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지난 6월 24일 '나눔-On 캠페인' 공개 생방송을 통해 기부금 10만 829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On(온) 공개 생방송'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의 후원과 지원상황 등 중간보고뿐 아니라 생방송을 통해 캠페인에 함께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됐다.

실시간 기부마련을 통해 모인 성금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액을 상회하는 100,829.92달러가 모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지난 달 25-27일 애나하임 본사에

서 300명에게 생필품을 무료 배부했다. GBC “나눔-On(온) 캠페인”은 앞으로도 코로나나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나눔-On(온)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www.kgbc.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714)484-1190 nanum-on@kgbc.com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 신앙상담

(5면에서 계속)

그 뿐만 아니라 아내로 삼는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영구히 아내를 취하여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번 감응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천사들이 결혼하거나 가정을 이루고 영구히 산다는 사상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때는 장기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고 한 것처럼 영물인 천사는 육체가 없기에 결혼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사람과 결혼하여 반신반인인 네피림을 낳았다는 것은 이방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나올만한 이야기로 억측입니다. 유튜브의 성경해설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 미주한인교회 2020 온라인 찬양제 열린다

## 대상 1만 달러 상금...최종결선 유튜브 생중계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를 아우르는 대규모 온라인 찬양제가 열린다. LA와 뉴욕, 애틀랜타와 워싱턴DC, 시카고와 달라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까지 곳곳에 뿌리내린 한인교회가 마음껏 노래하는 찬송의 축제 한마당이다.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KCMUSA) 이사장 박희민 목사가 주최하는 '미주한인교회 2020 온라인 찬양제'는 예선에서 본선 그리고 결선에 이르기까지 7월부터 10월에 걸쳐 본격적으로 치러진다.

찬양제는 예선과 본선은 영상 접수 및 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결선은 심사위원단이 출연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또 참가한 교회 찬양대의 찬양 실황은 대회 사이트는 물론 유튜브(KCMYOUTUBE.COM)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될 예정이다.

대상을 받는 찬양대에게는 1만 달러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금상은 5000달러와 트로피, 은상은 3000달러와 트로피 그리고 동상은 2000달러와 트로피가 각각 전달된다.

이번 온라인 찬양제는 박희민 목사가 대회장으로 선다. 주립학춘 목사(라구나힐스교회



담임)가 집행위원장, 윤형주 장로(가수, 서울 온누리교회)가 기획위원장을 맡는다. 총무는 김종성 KCMUSA 운영실장이 담당한다.

심사위원단은 미 서부와 동부, 중부 지역에 걸쳐 신앙과 음악적 명망을 갖춘 크리스천 음악인 6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은 박신화 교수(이화여대)가 맡고, 찬양제 코디네이터 전현미 지휘자(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회장), 이정욱 지휘자(LA Chamber Choir), 김정근 교수(콜로라도 주립대학 합창지휘과), 김용민 교수(무디바이블인스티튜트, 무디코랄 지휘자), 정세화 교수(University of Findlay 합창지휘)가 선정됐다.

대회장 박희민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미주 한인교회 공동체 모임이 어려워지고, 주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마저 단절된 시점”이라며 “KCMUSA 주축으로 시대에 맞는 온라인 찬양제를 개최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미주한인 디아스포라에게는 활기와 소망의 힘을 실어주길 원한다”고 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온라인 찬양제는 6개월 넘게 봉사한 찬양대원 12명 이상으로 구성된 교회 찬양대라면 참가할 수 있다. 한 교회에서 한 찬양대만 참여할 수 있고 외부 영입 전문 성악가는 대회 취지 상 동참할 수 없다.



남가주 범교민 6.25 한국전쟁 70주년 상기에배 및 기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전쟁 다시 없도록 기도하자”

## 미주한인이민 제118주년 한국전 70주년 예배

아메리카연합재단(총재 이우호 목사) 주최 6.25전쟁 70주년 행사가 S. S. Lane Victory호에서 지난 25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이정일 목사(구소련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성조가를 부른 후에 김창호 목사(기독뉴스 LA지사장)가 오편 기도회를 하고, 조유규 전 의원이 기념사가 있는 뒤 6.25노래를 합창했다.

조유규 전 의원은 “현재 우리가 승전하고 있는 이 배는

6.25 동안 때에 나와 7천명의 생명을 구한 귀한 배”라며 “이 배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무사히 도착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6.25전쟁은 참으로 비참한 전쟁이었다.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호 목사(아메리카연합재단 총재)가 설교했으며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 “하나님 은혜...참전용사 희생 잊지 말자”

## 남가주 범교민 6.25한국전쟁 70주년 상기에배 및 기념대회

6.25 한국전쟁 70주년 상기에배 및 기념대회가 6월 25일 오전 10시 총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개최됐다.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순서 진행자와 일부 참석자만 현장대회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됐다.

한기홍 목사는 기념사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미 동맹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우리는 미국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그날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상태. 한순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 6.26과 같은 비극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또 “전쟁의 폐허 속에도 하나님께서 작은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축복하신 이유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세계선교를 이뤄가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희생을 기억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다.

1부 예배는 박세헌 목사의 사회로 권영신 장로의 대표기도, 황태경 집사의 특송에 이어 민종기 목사가 '예루살렘을 주시다'(삼하5:6-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최학량 목사(이승만기념사업회 LA지회)가 축도했다.

2부 기념대회는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 예비역육군소령) 사회로 한기형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고문의 개회선언, 애국가 및 미국 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상병 목사(미주장신대 총장)의 개회기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의 기념사, 6.25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향한 감사 순서 등이 이어졌다.

이어 샘신 목사가 LA 에릭 가세티 시장의 축하 메시지를 낭독했다. 그리고 피종진 목사(세계기도모임 대표), 대한민국 전 합참의장 예비역육군대장 이필섭 장로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구국기도회로 진행된 3부는 샘신 목사의 사회로 김희창 목사(남가주예비역기독군인회 회장),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회장), 김창식 목사(전 반공포로/원로목사회 증경회장)의 인도로 △고국을 위한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만세 삼창 후 다니엘김 장로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대회를 준비한 김영구 목사는 “대부분의 6.25 참전 용사분들께서 연로하셔서 병원에 계시거나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시지 못했다. 특별히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대국이 됐지만 공산정권에서 신용하고 탄압받는 북한의 동포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며 “우리가 북한 2천5백만 동포들을 더욱 가슴에 품고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을 위해 힘쓰자”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 그레이스미션대 CARES Act 그랜트 실행

## 6월 29일까지 상단 완료, 2017년도 세금보고 필요

그레이스미션대학교(최규남 총장)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 교육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 그랜트 신청 및 배포를 실시하고 있다.

CARES Act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20년 3월 12일 재학생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FAFSA 신청이 가능한 대학부 대 학원생이며, 학교출석학생(100% 동신학생 제외), 2019-2020 FAFSA 신청을 해야 한다(수입이 많아도 관계없음). 2017년도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또한 Fsa 담당자와 6월 29일까지 상담이 완료되어야 한다.

본교 Chief Financial Aid Director 인 제임스구 교수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그랜트는 정식으로 학위신청을 받고 있는 정부학자금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인신학교로 이러한 혜택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CARES ACT는 그동안 주로 대학부에 해당하는 Pell 그랜트와 함께 고소득으로 인해 Pell 그랜트가 적용되지 않았던 BA 학생들과 대학원까지 확대해 적용된다.

현재 GMU는 약 5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생당 500여 달러 정도의 정부 그랜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www.gmed)와 정부학자금 보조 상담은 fsa@gmedu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기사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 2020 청소년 연합수련회 취소

##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코로나19 이유 밝혀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이 2016년부터 매년 7월에 개최해온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본 기도원 관계자는 “남가주 지역 한인교계를 섬기고자 남가주 한인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열어왔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열 수 없게 됐다”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내년을 기약하기

원한다.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청소년들과 교회들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제4회 수련회 당시에는 7개 교단, 19개 교회에서 115명의 청소년들과 이들을 섬기기 위한 10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문의: (951)928-4415, lafgced@gmail.com (기사제공: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 사임

## 당분간 캐서린 엠 부소장 업무대행

지난 11년간 한인 가정상담소를 이끌어 온 카니정조 소장이 이직으로 인해 자리를 떠난다. 카니정조 소장은 7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캐서린 엠 부소장이 새 소장이 취임될 때까지 대행한다. 카니정조 소장은 “지난 11년간 저를 믿고 도와준 직원과 이사진, 그리고 한인커뮤니티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한인 및 아시아인들의 권

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이사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자 찾기에 나선다. 신임 소장직 채용공고는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 kfam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235-4848 이 미리 홍보담당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9)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4) 뉴잉글랜드(New England)의 청교도 운동

로버트 알렌(Robert Allen)은 “초기에 온 자들인 뉴잉글랜드인들은 사상적 이익을 위해 왔고, 후기에 온 자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왔다”고 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신대륙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미국의 포석을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의 정신적 기초를 놓은 사람들은 1630년 이후 뉴잉글랜드 즉, 보스턴을 중심으로 이민 온 청교도들이다. 특히 보스턴은 영국군의 보스턴 시민학살 사건, 납세를 거부하는 보스턴 차(Boston Tea Party)사건들이 마침내는 영국과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고 승리한다. 그러므로 1776년 독립한 미합중국 건국정신의 바탕에 청교도 정신이 흐르고 있다.

뉴잉글랜드(New England)라는 이름은 그들이 떠나온 고국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1621년 청교도들은 포트네(Fortune)호를 타고 32명이 이주했고, 1623년 안네(Anne)호와 리틀제임스(Little James)호를 타고 100여명의 이주민이 새로 정착하게 한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10년 동안 1만 8천명의 대 이민(移民)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드디어 1628년 존 윈스롭(John Winthrop)을 중심으로 하는 청교도들(비분리주의자들)은 신대륙으로의 이민을 계획하였다. 1630년에 1000여 명의 이민자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에 정착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개인주의를 경계하면서 공동체의 의를 실현하는 경건한 사회 즉 ‘언덕위의 도시(City upon a Hill)’를 세우고자 했다. 성경에 기초한 법을 제정하

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었다. 청교도 비분리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오늘 의 보스턴(Boston)을 건설했고 후에 1636년 9월 8일에 목회자 양성을 위해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을 세웠다. 1637년 인디언 사도, 존 엘리엇(John Eliot)이 원주민(인디언) 선교운동을 시작하였고, 원주민을 복음화 하기 위해 인디언 문법책을 출판하고, 청교도 경건 서적과 알콘킨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특히 엘리엇은 선교했던 모든 마을에다 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다. 존 엘리엇의 헌신과 열정으로 1660년 나티크에 인디언 독립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 1650년 하버드대학 현장 초안에는 ‘이 나라의 영국인 젊은이와 인디언 젊은이들을 지식과 경건으로 교육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적혀 있다. 1685년 존 덩턴은 존 엘리엇 선교사를 “모든 뉴잉글랜드

그 이후 계속해서 오직 성경에 약속된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고 대자연에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대륙을 많이 찾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 역사의 정신적 지주는 바로 청교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John Eliot: The Man Who Loved The Indians

위의 도시’ 사상은 대 내외적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이것이 청교도 미주 이주 100년도 채 안 되어서 완전 세속화(世俗化, secularization), 타락(墮落)을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때 개인적인 경건을 주장하면서 뉴잉글랜드 사회를 하

미국 정신적 기초 놓은 이민자는 1630년 이후 뉴잉글랜드로 온 청교도 거룩한 공동체 이루려 ‘시민권 부여와 이민은 기독교 신자에게만 제한’

의 영광이자 록스베리의 영광”이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청교도 지도자들은 경건한 새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시민권 부여와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신자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헌장에서 청교도 이주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을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성도의 자격으로 도덕적 무후, 신앙의 고백, 회심 체험을 요구하였고, 그들에게만 참정권을 주어 다스리게 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미 신대륙 뉴잉글랜드(New England)에는 매우 정치적이고, 제국주의자들과 야합, 야망에 불타는 욕의 사람들 즉, 청교도 정신과 신앙이 희박한 자들도 많이 정착해 있었다. 그 당시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신정(神政, Theocracy) 정치 체계를 소망했지만, 뉴잉글랜드는 엄연히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682년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자치권이 영국왕실에 의해 취소되면서 청교도의 ‘언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한 사람이 바로 코튼 매더(Cotton Mather) 목사였다.

더불어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신대륙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로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해양국가들에 의한 해외식민지들 중 아메리카가 최대 황금어장(黃金漁場)이었다는 사실이다.

콜럼버스의 탐험은 기독교의 전파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진지한 탐구심이 아닌 각종 향신료의 수입을 위한 인도(India)와의 교역으로 얻을 수 있는 금과 보물이 가장 큰 이

함류하는 지점에 요새를 건설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올버니(Albany)이다.

현재 세계의 경제, 금융 중심의 도시인 맨해튼(Manhattan, “땅은 언덕의 섬”)은 1625년 레나페족(Lenape) 인디언들에게 맨해튼 섬을 24달러의 물품과 교환한다. 이 섬은 네덜란드의 소유가 된 즉시 ‘뉴암스테르담(New Amsterdam)’으로 명명된다. 그러나 1664년, 영국-네덜란드 전쟁으로 잉글랜드가 뉴암스테르담을 점령하였고,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서 뉴욕(New York)으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신

대륙 아메리카는 청교도들이 1620년 이주 전부터 제국주의 열강 해양 국가들을 위한 로또(Lotto)와 같은 황금 식민지였다.

[참고] 미국에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정착한 사람들은 청교도들보다 13년 앞서 1607년 5월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Jamestown)에 ‘수잔 콘스탄트’(Susan Constant)호를 타고 도착한 104명의 영국인들이었다. 그러나 1622년 3월 22일 포우하탄(Powhatan) 인디언들 습격에 의한 제임스타운 학살(Massacre) 사건 발생으로 철수한다. 플리머스가 건국의 상징으로 남게 된 것은 그에 앞서 1607년 버지니아주 체사피크 만의 제임스타운에 닿은 내렸던 첫 정착민들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바닷가 늪지대에 104명의 영국인들이 정착한 이후 1624년 제임스 1세가 제임스타운을 건설한 버지니아 주식회사를 해산하기... 제임스타운의 짧은 역사는 영광과 수난의 연속이었다. 제임스타운 개발은 당시까지 스페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북미대륙에 식민지 건설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영국의 실험이었고, 정착민들이 대서양을 건너 주된 동기는 돈이었다. 즉, 식민지를 건설, 옥수와 포도주, 원목 등을 본국에 팔자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6개월간의 항해 끝에 낯선 땅에 도착한 영국인들은 알콘킨족(Algonquian) 인디언과 스페인 군함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는 바닷가 늪지대에 마을을 조성했다. 물물교환을 통해 식량을 얻기도 했지만 때로는 빼앗기도 했다. 인디언들이 작심을 하고 식량을 끊었을 때 정착민들을 가축은 물론 인육까지 먹어야 했다. 굶주림과 장티푸스, 이질 탓에 1610년까지 20여명만이 살아남았다. 그 후 150명의 인력이 추가 파견되고 세모폴의 요새를 건축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평화가 깨지고 1622년 인디언들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주민들은 결국 제임스타운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특/별/기/고

배교의 시대에 생각한다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코로나 시국에 깨닫는 복

2020년을 기준으로 인류사회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다면 단연 코로나일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미증유의 공포와 불확실성은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삶은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불행 없이 교회에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던 신앙인의 자유가 통제 받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예배당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 거리낌 없이 행하던 찬양 콘서트나 통성기도와 같은 전통은 더 이상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한편으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귀중함과 진정한 예배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예배에 대한 갈증으로 그분에게 마음껏 찬양을 올려

드리는 가운데 원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원도 간직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쫓겨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칫 잊어버릴 수 있었던 예배의 감동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깨달음을 주셨다. 이 시국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아픔 중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회복한다면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위험한 시국이지만 그분의 사랑을 다시 체험함으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됨은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짝한 교회의 배교

오늘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의 기류가 갈수록 그분의 교회 안에 만연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일마다 세상 뺨치는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에 잘 나타나 있으며 예하여 숫자와 돈이 그것이다. 교회마다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숫자나 물질의 액수가 우상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를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안타깝게도 성공이라는 이름의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가치관으로 무장한 채 세상인자 교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교의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정해주시는 기준을 떠나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그분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교회가 세상과 간음을 일삼는 가운데 그분의 분노를 살 가증한 일

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 악행을 일삼던 소돔을 비롯한 도시들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이며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가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만족에 빠져드는 예배군들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배반하는 배교의 현실을 망각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중심으로 잘 포장된 종교생활에 깊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영혼을 죽이는 강단의 메시지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제자됨의 덕목을 보면 예수 안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은 주안에서 자아가 죽는 대신 죽는 시늉만 하면서 회중들로 하여금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그러한 이유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아무런 (임팩트)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하나마한 것이 되어 버렸다. 오늘날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들이 회중들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심령을 찌르는 가운데 듣는 이로 하여금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심령의 변화를 이루는 생명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강단에서 증거되는 메시지마다 이미 듣는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는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심지어 “당신은 잘 될 것이다,” “세상에서 복 받아 번영할 것이다,” “긍정의 힘을 의지하라” 등등 듣보잡(?) 같은 사이비 복음들이 강단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목사들마다 회중들로 하여금 부담이 없고 편안하며 무난하게 느껴질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들의 관심을 채워준다는 이유로 영혼을 살리기는 커녕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로 둔갑하고 있으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파수꾼의 심정을 펴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명시되어 있다. 파수꾼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한 사람이라도 같이 제함을 당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돌린다는 말이다.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은 적당히 믿는 척 하면서 대중대중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니다. 우리 각 사람은 물론 온 인류에 다칠 환난의 시기가 임박한 지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신앙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 성경적인 신앙을 파수하려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치에 반대한 독일 고백교회 교인들이나 일제의 신사참배에 대응하여 신앙의 대가를 치렀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순교적인 각오와 결단으로 세상이라는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믿는다는 말은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참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 선교의 창 (14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환경 변화와 대책

Covid19는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깊은 생체기를 남길 것이다. 우리에게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2001년 미국의 9·11테러, 2008년 글로벌(Global) 금융위기가 하나의 트라우마(trauma)로 남아 있다. 이에 비해 코로나 사태는 일련의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충격이 크다. 흑자는 기원전과 기원후를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로 나누듯 2020년을 기점으로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의 시대로 구분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아무튼 현재 지구촌의 77억 인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이는 비단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등 모든 면에서 전 방위적이다.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예측이 어렵고 통제가 쉽지 않으며 곧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답답하다. 21세기 첨단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던 말인가?

팬데믹(pandemic)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 때에 생존 자체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선교를 멈출 수도 없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낙심은 금물이

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동전은 양면이 있듯이 긍정적인 면도 살펴봐 창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인간역사 속에서 비록

### Covid 19로 인한 세상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승자는 판이 바뀔 때 탄생한다. 하수는 파도에 휩쓸리나 고수는 파도를 타며 즐긴다.

더디고 굴곡은 있었을지언정 결코 멈춤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 1. 일반적 측면에서 사회적 변화

작가이자 전략가인 토니 몰간(Tony Morgan)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날로그(analogue)에서 디지털(digital)로, 가르침(teaching)에서 훈련(equipping)으로, 모임(gathering)에서 연결(connecting)로, 글로벌(global)에서 로컬(local)로, 다양한 사역에서 사역의 단순화"로의 전환 등이다. 그는 압축해서 잘 말해주었다. 이밖에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참고하면 앞으로 세계경제는 Covid19로 인해 불황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이는 살림살이에 부담을 주게 되며 출산율은 낮아지고 생산성 인구비율을 감소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기피하게 되고 1인실 분리 공간 등 나홀로의 삶이 일상화될 것이다. 또한 비대면(Untact) 소통을 선호하게 되며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보편화 될 것이다. 비즈니스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무인화·자동화가 대중화되며 4차 산업혁명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도 세계화를 지양하고 국가주의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바이러스 덕분에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며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이 좀 더 보호되고 도시는 한결 여유가 있게 될 것이다.

#### 2. 부정적 측면에서 선교환경의 변화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선교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먼저 부정적 요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는 마당이기에 당연히 출, 입국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가별 출입감시 강화로 각국이 비자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외국인들의 여행은 예전처럼 환영받지 않게 될 것이다. 비자와 재정적 문제 등으로 선교사의 현지거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선교환경도 더욱 많은 제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간 선교동원과

훈련 차원에서 시행해왔던 대형집회(Conference)나 모임들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수양회나 합숙훈련 등도 재고될 수밖에 없다. 후방의 지원교회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교회들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며 선교비는 우선순위에 뒤로 밀릴 것이다. 전반적으로 교회 안에 선교 열의도 낮게 되며 헌신자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름철이면 교회마다 유행처럼 추진해왔던 단기선교도 타격을 받게 되며 중·장기 선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3. 긍정적 측면에서 선교환경의 변화

긍정적 요소로서 먼저는 선교지가 많이 정화될 것이다. 그동안 선교현장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락거렸다. 여러 단기선교 팀, 후원

하면서 넓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교회의 선교사 선발도 엄선하게 되며 질이 향상될 것이다.

#### 4.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통해서 선교동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선교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첫째로 프로젝트 중심에서 사람중심 사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못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일꾼으로 양육하지 않는 채, 건물 중심의 화집은 시간이 가면 썩물처럼 산화되기 쉽다. 이에 우리는 보여주기식 집회를 지양하고 개인별 맞춤형 양육과 소그룹 형태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둘째로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모든 영역에서 창의적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비대면 복음 전파를 위해 정보통신(IT) 기

협력과 나눔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온 각개 전투 형태의 사역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선교는 당연히 나의 Kingdom이 아니라 하나님의 Kingdom이다. 그러함에도 그간 한인선교는 너무나 폐쇄적이고 분파적이었다. 한 예로 설사 좋은 매뉴얼이 있다 해도 그것을 나누는 데 인색했다. 옆의 선교사와 단체는 동역자라기보다 경쟁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통탄할 일이다.

#### 맺음 말

세상에 그 무엇이 인간의 행동반경을 이토록 제한할 수 있던 말인가? 인류 역사상 글로벌하게 관공서와 학교 나아가 교회와 사찰, 이슬람의 모스크까지 문을 닫게 한 것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번 코로나사태는 토네이도처럼 인간세상을 뒤집고 있다. 선교환경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럴 때에는 생존자체도 쉽지 않는데 나아가 사역을 해야 하니 머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방법은 선교의 명제인 "본질(Text)은 변하지 말아야 하되 상황(Context)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의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며 창의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 그 핵심은 사람중심 사역, IT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사역, 자비량 전문인 사역, 단체와 교단을 초월한 글로벌한 연합사역이 되어야 한다. 한인세계선교는 지금 큰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승자는 고금을 막론하고 판이 바뀔 때 탄생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광풍에 휩쓸리거나 파도를 타며 즐기는 고수처럼 역으로 이 기회를 잘 살려 나아가야 한다.

jrson007@hanmail.net

# 드라마 예언서 (2)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방 유다에서 활동한 오바다와 요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호세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아모스, 요나와 동시대를 살면서 북방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호1:1에 의하면 그는 대략 BC 760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40-50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북방 이스라엘 예로보암 2세 당시에 사역을 시작하여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 앗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후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남방 유다를 어떻게 다스리지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 호세아서의 배경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을 예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왕하 14:23),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은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으며(왕하 14:25) 부국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즐기고 최고 요리와 건축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정직한 소득, 뇌물, 속이는 저울, 가난한 자들을 사고팔며 극빈자들의 것을 약탈하는 사회상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고발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호세아 선

### 호세아서: 풍요로운 시대지만 썩어가는 내부 아모스, 요나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 "하나님만이 구원자" 선포

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동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행동예언은 다름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호세아서의 내용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호1:2)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장자 이스르엘(뜻은 '흠을 드러냈다')과 장녀 로루하마(뜻은 '공허히 여김받지 못한 자'), 그리고 차남 로암미(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를 낳았습니다(호1:3-9).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로암미를 암미(뜻은 '내 백성이자')로, 로루하마를 루하마(뜻은 '공허히 여김받는 자')로 고쳐 부르시겠다고 하십니

다(호2:1).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고멜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죄는 음행입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음란을 위해서 찾아간 대상은 바알이었습니다(호2:2-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타이고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어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공허히 여김받지 못하

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겠다"(호2:14-23).

(자녀를 셋이나 낳은 고멜은 음행을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호세아는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받을 가지고 고멜의 품값을 지불하고 매음굴에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 고멜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에게 마음을 주고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호3장).

이들이 타락하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호4장). 특히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왕족들부터 부패와 음란에

빠졌습니다(호5:1-7).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분이시며,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호6:1-11). 즉,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들의 음란과 타락상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을 일삼음과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이방인들과 섞인 것입니다(호7:1-8). 그들은 여호

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과 앗수르를 의지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망할 것입니다(호7:9-16). 원수가 독수리처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며(호8:1-3), 영적인 음란함으로 심졌던 송아지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호8:4-7).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호8:8-14). (그들의 원대로) 그들은 여호와와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호9장).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호10장).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사람의 줄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며 범죄하고, 으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면서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지는 이슬처럼,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처럼, 골짜기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호13:1-4). 하나님께서는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을 심판하여 패망하게 하실 것입니다(호13:5-16).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언하고 약 40여년이 지난 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하여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을 점령한 앗수르는 북 이스라엘에 대하여 통혼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혼혈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호소하십니다(호14:1-3).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슬과 같고, 이스라엘은 백향목같이 피고 레비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게 박힐 것입니다(호14:4-8).

호세아서의 결론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하리라"라(호13:4)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dsukim@gmail.com



알기쉬운 IT 칼럼 (5)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한국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제 2의 Pandemic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미국의 경우 확진자가 220만명, 사망자는 12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정착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신개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설령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린다는 소리에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세계 최강의 방역 시스템을 자랑하는 한국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죽은 불씨 살아나듯 어디선가 스멀스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태는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철저히 관리하고 방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방문에 관한 정보를 말씀하셔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IT란 Information Technology이니 이런 정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여러 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열을 재고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에 따라 열이 나거나, 혹은 이상이 있다고 느끼면 공항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공항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고 또 하나는 자가진단 앱입니다. 이 앱은 QR코드를 이용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방법은 네이버의 렌즈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의 QR코드를 이용하여 카메라로 비추면 바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공항에서는 와이파이기가 무료로 연결되니 문제가 없는데 만일 내가 격리하는 곳이 와이파이기가 없는 곳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단계로 한국의 보호자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있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민국을 통과하고 나면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데 자가용 운전은 적극 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차를 두 대 가지고 나와, 하나는 귀국한 가족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반드시 국제운전면허를 받아 가지고 오셔야겠지요? International Drive License는 AAA에서 발급해줍니다.

어쨌든 이게 불가능한 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무진 버스입니다. 이것은 귀국자 전용인데 서울의 경우 구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3시간이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지방도 KTX에 특별 칸을 배정하여 운행하는데 문제는 역에 내려서 집에 가는 길이 만만치 않고, 특별히 짐이 많은 분들이 아주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귀국한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용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조금 비싸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분명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면 강북구까지 가는데 집으로 직접 데려다 주면 8만원, 보건소를 들러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주면 12만원인데 제 경우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3일 이내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데 혼자 보건소를 갈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엠블런스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아파트에 엠블런스가 나타나면 주민들을 격정시킬까 봐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또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있어 1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손 소독제 5개와 Spray소독제 하나, 그리고 체온계 2개, 대형 의료용 쓰레기봉투 2개를 주는데 특히 이 체온계는 매일 체온을 측정하여 하루에 두 번 자가격리 앱을 통해 보고해야 하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격리 후에는 집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단 매일 아침 8시와 밤 8시에 앱을 통해 자가진단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두 번 이상 구청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합니다. 불시에 다른 쪽에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제 경우 집전화를 등록하여 집으로 전화를 오게 하였습니다. 또 만일 스마트폰 앱이 위치를 벗어났다고 알려주면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실형을 살기도 하고 외국인인 경우 추방됩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반드시 자가 격리할 곳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어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만일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또 동네 주민들이 감염이라도 된다면 아마 동네에 살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오셔야 할 것입니다.

자가격리 할 곳도 마땅치 않고 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분들은 시에서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하루에 10만원입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Air B&B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완전한 독재를 얻어야 하고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음식재료를 공급해줄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쓰다보니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다음 시간에는 IT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kcdc1217@hanmail.net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영생을 누리는 삶(막10:17-22)

하나님나라 백성은 한 가지 부족함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임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일로 시작합니다(17-20). 그 청년은 십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하지만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한 것은 그 자체가 여독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 계명을 지킨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죄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소유권이 주께 있

음을 알지 못했습니다(21).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일은 영생의 가치를 알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21). 영생은 그리스도이고 그를 아는 것이고 나아가 그리스도에게 전부를 바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고 금생과 내생에 참된 유익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구원(막10:23-27)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부자가 모르는 구원세계가 있습니다(23-24). 많은 재물 때문에 슬픔으로 주를 떠난 부자는 그 부요 때문에 눈이 가려져 구원세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결코 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부요를 주를 위해 바친 자가 눈이 밝아져 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나라

는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24).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절대 무력을 아시고 그것을 치료하시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십니다(27). 원시복음(창3:15)에 이미 말한 그 원리,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이 여기서 더 확실히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그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수 주를 위해 허비하는 자(막10:28-31)

그 나라 백성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를 따르는 결단을 가진 자입니다. 첫째,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28-29). 이것은 그 소유권을 주께 양도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가리킵니다. 이런 용단은 누가 누구인가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비추임으로 그 실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리해야 합니다(29). 모두 버리고 온전히 따르는 대상

은 주와 그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모두 그리하게 됨은 그 복된 부요를 보고 그것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박해 속에서도 백배를 받고 영생을 반드시 받습니다(30). 참된 회개와 믿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그 속에서 온전한 부요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삼니다. 오늘도 이 복된 약속을 누리는 신자가 됩시다.

목 인자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막10:32-34)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중보자로 오신 것을 세 가지로 증거하셨습니다.

첫째, 그의 고난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33).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당하신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죽음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하

는 길입니다(34).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와 죄책과 형벌을 대신하셨습니다.

셋째, 그의 부활이 구속의 완성을 선포합니다(34).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의 중보의 능력을 누리며 찬양합니다.

금 무엇을 구할까?(막10:35-40)

두 제자의 간구는 정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육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사함을 넘나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자가 바로 구할 바를 알게 됩니다. 성령은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진정 구할 것을 아는 자는 복된

다. 둘째, 십자가를 중심한 간구이어야 합니다. 큰 소원은 그만큼 큰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즐거움의 원리가 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께서 준비하신 것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은 그 뜻을 중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토 섬기는 자로 오신 주님(막10:41-45)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최대의 사명을 가지셨는데도 강압으로 하지 않으시고 겸손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는 섬김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의 교만은 다른 이들을 시기함으로 나타났지만 주님은 그릇된 그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섬기지 않는 자는 화를 내도록 되어있

니다(42). 둘째, 큰 자의 섬김으로 나타내셨습니다(43). 구원을 책임지신 분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섬기셨습니다. 이 땅의 큰 자가 되는 길은 오직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셋째, 최고의 자리는 목숨을 버리는 섬김으로 찾습니다(44-45). 그는 목숨까지 버리는 대속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분의 섬김을 따라 종의 도를 갑시다.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선교 편지

## 케냐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이송되던 바울과 276명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상황에 대해 20절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에 처한 이곳 형편도 이와 견줄 만합니다. 모든 사역을 중단한 지 석 달이 넘었고, 성도들과 함께 공예배도 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에도 개인 제자훈련과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6월 초 콜미차(Kulmicha)라는 한 청년이 강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성경훈련센터가 들어선 부지에 있던 집(고모가 살고 있었음)에서 얼마 동

육을 받았고 지금도 천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벳에서 보내는 한 달 휴가 동안 성경을 더 읽고 싶어서 강선교사와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구원의 확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등 차근차근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공무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막노동을 하며 학비를 벌고 있는 열아홉살 난 마이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형제에게 복을 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강선교사는 "오늘 밤,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질문으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든 어떻게 예수님을 삶에 모실 수 있으며,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하나씩 성경구절을 찾아 읽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겠느냐?' 물으니 마이클은 서슴없



려 입고 저희 집에 와서 그의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퓨리티 자매는 정선교사와 매일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생각과 행동이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퓨리티의 어머니는 딸의 변화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퓨리티가 정선교사와 성경공부를 마치면 자기 엄마와 성경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형제도 강선교사와 함께 일대일 제자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선교사는 성경공부와 더불어 매일성경읽기, 기도훈련과 함께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자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군인 엘리자벳 자매는 최근 이곳 종족갈등으로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경공부의 시간을 정했지만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정선교사는 자매와 자주 연락을 취하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벳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과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케냐의 코비드19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6000명을 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에 초중고 학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새 학사일정을 발표했다지만 부족한 교실과 기숙사, 교사 확충 등등 방역기준에 맞춰 다 준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봉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서 조만간 지역 봉쇄와 국내외항공 운항을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절망 중에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야하겠고..."(24절).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기까지 하

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마치도 저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저희를 이곳 마사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을 다한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저희의 감사와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감사제목

1. 코로나19 중에도 개인 제자훈련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심
2. 마사벳 지역의 종족 갈등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필품을 공급해 주심
3. 정선교사의 질병(장티프스)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심

#### 기도제목

1. 케냐의 코로나19가 상황이 호전되고 9월에는 성경훈련센터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 6월 마사벳 지역 종족간 발생한 충돌이 종식되도록
3. 각 지역으로 돌아간 성경학교 학생들의 교회와 가족의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4. 다니엘이 제자로 잘 성장하고 장래 사역을 위해 잘 준비하도록, 퓨리티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콜미차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직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엘리자벳, 마이클이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5. 7월 중순 케냐 방문을 순직하게 해 주시길(아들 내외와 손자를 영육간 든든히 세우소서)
6. 강 선교사의 이석증(어지럼)을 치료해 주시도록

강병권, 정혜란 선교사  
jnkang@aimint.org

### 채플린 임상목회 (41)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 병원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에 적응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감과 신종플루 등의 전염을 겪어본 베테랑 의료진들마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째, 연방 및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상적인 수술 및 시술 환자들을 받지 못해서 이 분야의 의사 및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병원도 재정악화를 겪고 있고 스태프들의 상당수도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수술을 기대하고 있었던 비응급 환자들입니다.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응급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줄어들고 모르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하는 수술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감성적 불안감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 가운데 급성증세를 띠고 병원에 실려와 격리된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가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기존 의료진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자원이 부족해 지게 되고 감염위험도 높아져 병원을 사직하는 의료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급료를 주는 다른 도시/주의 병원으로 스카웃 되어가는 스태프들도 많습니다.

셋째, 가족들의 입원환자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는 바람에 환자들 뿐 아니라 가족들의 스트레스와 분노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병원 측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도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측도 별도로 태블릿 PC 등을 준비해서 환자와 가족들이 비대면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비구입과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존 스태프들 역시 감염에 대한 우려와 자기 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아예 나와서 병원 근처에서 별도로 숙식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늘고 있고, 이런 직원들을 위해 인근 모텔이나 아파트를 단체로 계약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만 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 또한 채플린들의 사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일반 진료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다보니 병원 재정수지가 많이 악화되고 있어서 병원 증, 가축 및 새로운 장비 도입 등과 같은 병원 발전계획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차 병원진료의 질적 저하 역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사태와 변화추이에 따라 병원 또한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의료체계 전체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주 손씻기, 외출시 혹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 집단 모임이나 파티 등의 참석을 자제하기, 교회의 예배참석 시에도 상기원칙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고열증세가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집단모임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고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를 것 등을 권면 드립니다. 하루속히 병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병마가 물러가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교회로 돌아가 예배와 찬양, 성경공부와 친교를 하는 복된 시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tdspark@gmail.com



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곳이 오랫동안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롭게 단장된 캠퍼스를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온 것입니다. 총명하든 이 젊은이는 어리지만 이 지역의 중요한 일을 맡은 고급 공무원입니다. 천주교회학교에서 교

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오늘 목사님처럼 저에게 구원받는 길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영접 기도를 마친 마이클의 두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마이클은 깨끗하게 차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b>남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아전례: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전례: 오전 11:20 영아전례(장소:KDC, 청빙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9: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Gaider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계속해서 흠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머무는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말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요일장소)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사역원</b>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화선교회 협동목사 생명의 사랑: (월-금) 오전 9:45(10:00) 사역지역: 1. 영산사역 2. 목회사역 3. 가정사역 4. 내로터라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5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새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회학교: 오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9:45(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핼(PIM)선교회, 교회</b>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전 11:00 교무부: 오전 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영성경' 임재기도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미주한인교회 2020 온라인 찬양제

2020 Praise the Lord Online Music Festival for the Korean Churches in America

ONLINE



YouTube



Online 찬양제를 개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Covid19 Pandemic 사태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마저 힘든 시기에 Online 찬양제를 KCMUSA(재미한인기독교재단) 창립 18주년을 맞이해 개최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미주 내 한인 Diaspora들에게 활기와 소망의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 찬양제 일정

신청자 접수: 7월 7일 ~ 7월 31일 • www.KCMUSA.org 에서 신청자 접수 및 (접수번호) 확인

참가비: \$300 / 온라인(www.KCMUSA.org) 또는 수표

- 예선: 8월 28일 예선곡 마감
- 예선 발표: 9월 4일 주요 일간지와 대회 사이트에서 당선팀 확인
- 본선: 10월 2일 본선곡 마감
- 본선 발표: 10월 9일 주요 일간지와 대회 사이트에서 당선팀 확인
- 결선: 10월 30일 최종 결선곡 마감 ※ 본 찬양제 참가 찬양곡 모두는 YouTube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당선팀 발표: 11월 12일 주요 일간지 및 각 매체와 대회 사이트를 통해 발표

## 수상 상금 및 부상 (각 1개 팀)

대상: \$10,000달러 및 트로피

금상: \$5,000달러 및 트로피

은상: \$3,000달러 및 트로피

동상: \$2,000달러 및 트로피

신청서 접수 및 안내: www.kcmusa.org

## 심사 위원



심사 위원장  
박신화 교수  
이화여대교수



심사 위원  
전현미 지휘자  
남가주한인교회  
음악협회회장



심사 위원  
김정근 교수  
콜로라도 주립대학  
합창지휘과 교수



심사 위원  
김용민 교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교수



심사 위원  
이정옥 지휘자  
LA Chamber Choir  
LA Children's Choir



심사 위원  
정세화 교수  
Univ. of Findlay  
합창지휘 교수

집행 위원장: 립학춘 목사 (실행 이사, 라구나힐스교회 담임), 기획 위원장: 윤형주 장로 (가수, 서울 온누리 교회)

총무: 김종성 (운영지원 실장) 문의: 이메일 kcmusa@kcmusa.org

Sponsored by:  KOTUKU



**KCMUSA.org**  
재미한인기독교재단

이사장 박희민 목사